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폴란드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폴란드공화국 (The Republic of Poland)
면적	312,685 km ²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수도	바르샤바 (Warsaw)
민족(인종)	
언어	폴란드어
종교	가톨릭 85%, 동방정교 1.3%, 개신교 0.4%, 기타 13.2%
기후	전역에 걸쳐 비교적 온화하며 남동부는 대륙성 기후, 북서부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남 여름: 온화한 여름, 잦은 소나기 겨울: 춥고 눈이 많음, 강수 빈번
국가원수	대통령: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Mateusz Morawiecki)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89-11-01 (자료원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90-02-02	양국 간 무역교류에 관한 협정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2-02-21	양국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항공운항에 관한 협정	1992-04-03	양국 간 운항허가 및 항공운항에 관한 상호 협정	
상호비자 면제협정	1993-12-24	해당국 국민은 사증없이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10-03	양국 과학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의 상호교환, 과학기술 인력교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문화협정	1994-10-03	양국 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국제 또는 국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1999-01-24	한국 운전면허증은 폴란드 거주증을 발급받은 후 폴란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	
세금 문제에서의 상호협력협정	2000-03-31	양국 간 원활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정	
양국 청소년 교류 및 스포츠 교류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	2004-12-03	폴란드 교육체육부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청소년 교류 및 스포츠 교류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조약체결	2005-03-17	양국 간 관광분야에서의 교류에 관한 협정	

경제협력조약체결	2005-04-18	양국 간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03-01	(조약 제1997호)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됨	
군사비밀보호협정	2010-03-05	(조약 제1998호) 양국 정부는 접수한 군사비밀 정보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6-10-15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폴란드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로 함	
국방협력협정	2014-09-23	당사자는 국방 계획, 군사 연습, 군수 지원 등의 국방 분야에서 협력함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	2018-06-01	각 당사자는 사증 신청시 18세이상 31세 미만일 것,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들에게 12개월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함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19-10-23	양국 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교민 수

4,000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냉전 시절에는 다른 동유럽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수교 관계에 있었다가 1989년 11월 1일 공식수교를 맺었다. 앞서 KOTRA는 한국-폴란드 간 무역사무소 상호 교환 설치 합의에 따라 1989년 4월 13일 바르샤바 무역관을 개소하였다.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1989년 11월 27일 개소하였으며, 주한 폴란드 대사관은 1990년 1월 16일 개소하였다.

◦ 1994년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이 한국을 첫 방문 했다. 그 후 2002년에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대통령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폴란드를 국빈 방문했다.

○ 2009년 7월에는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 카친스키 전 대통령 및 투스크 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중동부 유럽 최대 투자 진출국으로 양국 정상은 폴란드 내 한국기업을 위한 사업 환경 조성 등을 논의했다.

○ 2013년 10월 22일에는 폴란드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였다. 이날 한-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무, 경제·통상, 국방·방산, 정보통신, 보건·의료,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 방문을 통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시 양국 간 수립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에서 국가 간 동맹 다음으로 가장 긴밀한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 2018년 2월에는 안제이 두다 현 폴란드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참석차 방한하였고, 2019년 9월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공식 일정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미래 산업, 방산협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9년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확대되고 심화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특징은 견고한 경제·통상 관계를 기반으로 고위 인사 교류에 의한 돈독한 정치 관계, 그리고 학술·문화 관계로 확대 발전 중이다.

○ 2020년 4월에는 두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속 양국의 경제·보건 협력을 위한 정상 통화를 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한-폴 간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2022년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핵문제 등 다양한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참고로 북한은 폴란드와 1948년 10월 1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양국 수도에 대사를 파견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 폴란드는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대단히 가까운 관계이며, 한국과의 경제 교류 규모를 지속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1993년 대우전자의 진출로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는 1995년 대우자동차의 투자와 함께 여러 협력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후에는 경제 전반 여건의 호전과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진출하였고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삼성전자가 현지 가전 회사인 Amica를 인수하면서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자제품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6년부터는 LG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생산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 진출도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부속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한국 협력사들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폴란드에 투자 진출하고 있다.

○ 2018년에는 폴란드 투자무역청(PAIIH)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한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9년 5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폴리체 석유화학플랜트를 수주, 2019년 6월 현대로템 바르샤바에서 트램사업을 수주, 2020년 8월 두산중공업 올슈틴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 2020년 포스코 바르샤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수주, 2020년 11월 인천공항공사 폴란드 신공항(CPK, Centralny Port Komunikacyjny) 수주 등 국내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현지 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SOC 건설사업, 조달 프로젝트, 방산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폴란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 2021년 3월에는 포스코가 폴란드 남부 지역에 폐 배터리 법인인 'Poland Legnica Sourcing Center Sp. z o.o.'를 설립하였는데 동

폴란드 법인은 유럽 내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동 공장의 착공식은 2022년 8월 말에 열렸다.

문화

◦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27일 바르샤바에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을 개원한 이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 2005년과 2015년에는 폴란드에서 개최되고 세계 최고 피아노 경연대회로 손꼽히는 쇼팽콩쿠르에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하여 입상하였다. 200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임동민 형제가 공동 3위를 수상하였고, 2015년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 큰 인상을 남겼다. 특히 폴란드에서 쇼팽은 상징적 존재로 폴란드인들은 동 경연에서 우승한 연주자를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폴란드 협연 등 다수 연주회에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 최근에는 K-POP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10~20대를 중심으로 한류 붐이 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아이돌 가수 상품, 화장품, 식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문화의 달, 2021 온라인 K-POP 댄스 경연대회, 뮤지컬 ‘마리 퀴리’ 상영회 및 체험행사, 2021 한-폴 현대예술교류 프로젝트 “Citimprovisation: Seoul x Krakow”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 2022년 3월에는 폴란드 최고의 클래식 음악제로 평가 받는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에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동 페스티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관현악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등이 참가해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온 오프라인으로 선보였다.

◦ 2022년 9월에는 ‘한국문화의 달’ 행사가 개최되어 전시, 영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5.4	4.7	-2.5	5.7	
명목GDP (십억\$)	587.43	597.19	595.93	674.13	
1인당 GDP (PPP, \$)	32,530	34,690	34,230	37,790	
1인당 명목 GDP (\$)	15,470	15,730	15,720	17,820	
정부부채 (% of GDP)	48.8	45.6	57.4	55.5	
물가상승률 (%)	1.6	2.3	3.4	5.1	
실업률 (%)	3.8	3.3	3.2	3.5	
수출액 (백만\$)	324,494	330,868	335,209	410,540	
수입액 (백만\$)	306,504	302,459	294,679	382,246	
무역수지 (백만\$)	17,990	28,409	40,530	28,294	-
외환 보유고 (백만\$)	111,656	117,196	140,316	152,521	
이자율 (%)	1.5	1.5	0.1	4.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3.61	3.84	3.9	3.86	

<자료원 : IMF, World Bank, 폴란드 중앙은행>

나. 경제 동향

○ 1989년 민주화 이후 지속해서 경제 자유화를 추진해온 폴란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룩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년간 폴란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4% 전후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보였다.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EU 펀드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민간 소비의 굳건한 성장으로 인해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EU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며 중동부 유럽의 경제 강자로 떠올랐다.

○ 폴란드는 독일 등 서유럽 시장으로서의 높은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낮은 인건비 대비 우수한 노동력, 정부의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에는 가계소비 증가에 힘입은 내수경기 호황, 실업률 감소,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육아수당 지원 프로그램 500+와 300즈워티 상당의 학용품지원 등의 정책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 견고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력 증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실업률 등이 경제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코로나 19 대응 2020년 폴란드 정부의 록다운 조치로 국경봉쇄, 경제활동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여 2020년 한해 GDP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 이상 대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탄탄한 폴란드 내수경제 및 정부의 경제복구 기업 지원금 정책 덕분에 2020년 한해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 하락률은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두 국가와의 교역량 감소가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폴란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 현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집권 초기부터 폭넓은 사회복지정책들을 시행하여 경제계와 기업들이 '과한 재정지출'을 향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로 정부의 경제 지원금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국가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폴란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점차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 2021년 연간경제성장률은 5.7%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초 2022년 폴란드 GDP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이어 약 5% 대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수급 문제, 인플레이션 증가, 환율 불안,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의 여러 악재 요인이 맞물려 폴란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란드 경제계 및 국제기구는 2022년 폴란드 경제 성장 전망을 연초 전망치인 5%대에서 평균 약 4.5%대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지속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폴란드의 최대 교역국인 유로존의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평균 약 1.8%대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 주요 기관별 폴란드 2023년 폴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 IMF: 1.5 %
- OECD: 1.8 %
- European Commission: 1.5%
- 폴란드 국립 경제연구소: 3.5 %
- 폴란드 중앙은행 (NBP): 1.4%
- 폴란드 PKO 은행 : 0.9%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3,798,578,073
2	체코	16,754,266,407
3	영국	16,266,390,615
4	프랑스	14,668,744,262
5	이탈리아	12,126,347,973
6	네덜란드	12,002,274,655
7	러시아	8,027,406,078
8	미국	7,340,949,118
9	스웨덴	7,331,189,970
10	헝가리	7,008,524,73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1,848,071,673
2	체코	15,970,410,860
3	영국	15,885,587,553
4	프랑스	15,341,747,302
5	이탈리아	12,219,412,003
6	네덜란드	11,491,007,987
7	러시아	8,015,377,144
8	미국	7,664,701,904
9	스웨덴	7,305,927,936

10	헝가리	7,213,716,709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6,317,377,960
2	영국	15,484,642,524
3	체코	15,428,591,739
4	프랑스	15,078,380,521
5	이탈리아	11,606,289,273
6	네덜란드	11,370,254,508
7	미국	7,659,217,618
8	스웨덴	7,628,743,334
9	러시아	7,607,579,598
10	스페인	6,793,767,838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0,096,595,826
2	중화인민공화국	30,992,044,773
3	러시아	19,735,185,559
4	이탈리아	13,824,794,980
5	프랑스	9,941,643,668
6	네덜란드	9,839,969,253
7	체코	9,210,578,277
8	미국	7,640,543,186
9	벨기에	6,845,816,947
10	영국	6,535,472,44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6,483,967,244
2	중화인민공화국	31,810,970,603
3	러시아	16,137,261,863
4	이탈리아	13,060,375,040
5	네덜란드	10,176,556,112
6	프랑스	9,634,628,181
7	체코	8,927,989,373
8	미국	8,408,567,325
9	벨기에	6,426,080,070
10	영국	6,345,887,04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6,391,815,667
2	중화인민공화국	37,041,228,491
3	이탈리아	12,846,269,524
4	러시아	11,520,667,285
5	네덜란드	10,243,271,941
6	프랑스	8,855,727,992
7	미국	8,185,540,190
8	체코	8,180,640,062
9	대한민국	6,255,130,277
10	벨기에	5,846,599,24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205,783,945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021,404,995
3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3,662,817,694
4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378,152,376
5	870829	기타	3,187,289,661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906,944,028
7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2,500,900,365
8	730890	기타	2,362,842,039
9	940190	부분품	2,316,692,971
10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2,304,217,79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016,009,094
2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3,978,193,060
3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3,877,129,422
4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499,795,920
5	870829	기타	3,369,199,589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922,250,405
7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2,527,067,663
8	730890	기타	2,521,266,407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2,490,176,140
10	940190	부분품	2,315,247,323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4,597,647,716
2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512,232,132

3	240220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1,176,041
4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3,166,040,363
5	870829	기타	2,716,923,134
6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2,677,186,054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503,359,605
8	730890	기타	2,475,526,940
9	940161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2,279,622,077
10	300490	기타	2,219,152,00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4,500,512,447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026,059,984
3	300490	기타	3,994,539,173
4	271019	기타	3,412,776,916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103,474,086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806,540,453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49,207,607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2,465,452,064
9	852990	기타	2,462,875,302
10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282,014,37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2,358,045,612
2	300490	기타	4,203,928,997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946,176,692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333,187,712
5	271019	기타	3,025,043,866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2,914,969,079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34,855,901
8	852990	기타	2,557,736,367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423,886,695
10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961,128,73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035,697,646
2	300490	기타	4,298,441,200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944,970,124
4	852990	기타	2,650,583,246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489,035,919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316,668,081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284,326,474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230,307,827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993,420,972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897,187,491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4,334	673	3,661
2019	5,315	771	4,544
2020	5,639	834	4,805
2021	6,596	1,102	5,494
2022	4,838	733	4,10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090	10	1,080
2	2140	합성수지	323	6	316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327	1	326
4	8352	축전기	572	10	562
5	7420	자동차부품	268	80	188
6	8361	평판디스플레이	225	3	221
7	8138	전산기록매체	194	0	193
8	6222	동조가공품	174	0	173
9	7411	승용차	219	0	218
10	8151	계측기	76	14	6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311	8	1,303
2	2140	합성수지	275	6	269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265	2	263
4	8352	축전지	223	15	208
5	7420	자동차부품	156	68	88
6	8361	평판디스플레이	144	2	142
7	8138	전산기록매체	131	0	131
8	6222	동조가공품	115	0	115
9	7411	승용차	101	4	97
10	8151	계측기	97	13	8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268	80	188
2	1190	기타금속광물	0	252	-252
3	2262	의약품	12	59	-47
4	2429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1	36	-35
5	8499	기타 전기부품	0	1	-1
6	7111	원동기	4	13	-9
7	0243	낙농품	0	19	-19
8	8423	전원장치	92	30	62
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16	29	87
10	7121	운반하역기계	64	19	4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56	68	88
2	1190	기타금속광물	0	65	-65
3	2262	의약품	12	34	-22
4	2429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3	29	-26
5	8499	기타 전기부품	0	28	-28
6	7111	원동기	3	23	-20
7	0243	낙농품	0	19	-19
8	8423	전원장치	58	19	39
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74	17	57
10	7121	운반하역기계	68	16	5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21/US\$백만)	1,11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35.83
선정사유	폴란드인들은 서유럽에 비해 미용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뷰티 산업 크게 성장 및 대한민국 수입 증가추세		
시장동향	폴란드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약 3%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		
경쟁동향	1990년대부터 L'Oreal, Nivea, AVON 등 다국적 기업이 폴란드 현지에 투자 진출해 화장품 생산하고 내수 및 수출을 하고 있음		
진출방안	관련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거래선 발굴, 또는 온라인 마켓 벤더나 현지 디스트리뷰터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진출 타진 가능		
품목명 2	조제식료품		
HS Code	2106	수입액('21/US\$백만)	799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1.6
선정사유	폴란드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한 식품, 다양한 식품을 찾는 수요 확대 중		
시장동향	식료품 소비에 대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 전망		
경쟁동향	EU 역내 주요국 제품 시장점유율 우세,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제품 확대 추세		
진출방안	현지 우수 디스트리뷰터를 발굴하여 진입		
품목명 3	전기차부품		
HS Code	8708	수입액('21/US\$백만)	8,52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241
선정사유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따라 관련제품 수입 확대 예상		
시장동향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수요 확대 추세		
경쟁동향	수입 상위 10개국으로 EU국가 및 중국 위치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품목명 4	전력기자재		
HS Code	8503	수입액('21/US\$백만)	653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14

선정사유	폴란드 전력 수요의 증가로 발전용량이 지속 확장될 전망, 발전소 시설 교체 등이 꾸준할 계획		
시장동향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조달 확대 중		
경쟁동향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30%, 일본 수입이 전체의 약 16%이며, 중국인도 등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빠름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품목명 5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액('21/US\$백만)	1,40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39.6
선정사유	EU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의료기기 구입 등 확대		
시장동향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부유럽 최대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 약 5%		
경쟁동향	80% 이상이 수입제품이며, 주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선호함		
진출방안	현지 벤더를 통한 진입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발전 솔루션
선정사유	EU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등에 따라 전력생산 및 송배전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계획
시장동향	화력발전소 현대화, 원자력발전소 설립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 구체화 중, 관련 첨단 솔루션 구축 계획
경쟁동향	발전 시스템 강국의 對정부 마케팅 시행 중
진출방안	현지 적격 파트너를 발굴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조사단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조기 발굴
품목명 2	지능형교통체계(ITS)
선정사유	폴란드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확장뿐 아니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교통시스템 개발 추진 중
시장동향	EU기금 기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다수 계획
경쟁동향	주로 자국기업이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진출방안	폴란드 지자체, 현지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품목명 3	비즈니스아웃소싱(BPO)
선정사유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산업이며 현지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외국기업 70% 이상

경쟁동향	미국 기업 25%, 영국독일프랑스 기업 각각 7% 시장점유율 차지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품목명 4	물류
선정사유	폴란드 내 생산공장 설립 증가와 지리적 이점에 따라 물류 관련 시장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2020년 물동량 기준 도로운송 89.2%, 철도운송 8.4%, 해상운송 0.3%
경쟁동향	폴란드 철도기업 PKP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보유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또는 현지 기업 인수합병,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 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 7)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튀르키예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 3. 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 4.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럼(CARIFORUM)	2008-10-15	201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을 대체

Stepping ston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 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 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 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양측 체결 합의(2019. 6.28.)메르코 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 과이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 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 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 5. 협정의 현대화 협상개시 및 2020. 4. 28. 협상 타결. 현재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할 예정)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 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직전협상 2021. 5월)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21. 3.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중, 직전 협상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22. 2.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완료, 직전 협상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2017. 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 협상 2021.11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즈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즈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

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향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향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제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 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증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

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Everything but Arms)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

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2011%20Jan%202022%20.pdf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폴란드행 화물은 주로 동남아 바다와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운하와 지중해를 통과한후 유럽 연안을 돌아 발틱해로 진입하여 들어온다. 많은 경우,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작은 화물선에 환적이 되어 폴란드 목적항에 이르게 된다. 일부 화물은 독일 함부르크, 혹은 슬로베니아 코퍼에서 육로를 통해 폴란드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도 한다. 폴란드에는 물동량 순으로 그단스크(GDANSK), 그디니아(GDYNIA), 시비노위시체(WINOUJCIE), 슈체친(SZCZECIN) 등 4개 주요 항구가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화물은 주로 그단스크에 도착한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0년 기준 폴란드 전체 주요 항구의 물동량은 88,487.7 (천톤)로 2019년 대비 5.7% 감소했다. 주요 무역항별로 보면, 그단스크 40,574.7 (천톤), 그디니아 26,692 (천톤), 슈체친 9,581.1 (천톤), 시비노위시체 15,097.1 (천톤)이다. 그단스크의 경우 전년대비 -10.9%, 그디니아 +3.3%, 슈체친 0%, 시비노위시체 -1.9%의 변동률을 보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단스크 물동량이 전체의 약 50%, 그디니아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폴란드에는 주요 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그 중 수도인 바르샤바 쇼팽공항(WAW), 크라쿠프 공항(KRK), 그단스크 공항(GDN), 카토비체 공항(KTW), 브로츠와프 (WRO), 포즈난 공항(POZ)을 주요공항으로 꼽을 수 있다. 폴란드는 동유럽 최대 항공 화물 운송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으나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항공화물 및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공항 물동량: 폴란드 2020년 항공 물동량은 101,098톤으로, 전년대비 -18.1%감소했다. 폴란드 최대 공항화물터미널은 바르샤바 쇼팽공항에 있다. 2020년 기준 바르샤바 쇼팽공항에서는 한 해 동안 승객수가 548만 명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70.9%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화물 물동량은 74,983톤으로 전년대비 23.3% 감소했다.

3) 유의사항

상품운송에서는 종류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적합한 운송 포장에 요구된다. 항공, 육로 또는 해상 운송 여부에 따라 포장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품목별 정확한 포장방법, 포장재 및 운송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항공 운송에서 운송 포장 자체의 무게는 물론 수분의 흡수 및 방출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다. 해상 운송의 경우 포장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습기에 대한 저항이 중요하다. 상품 운송과 관련하여 포장 내용물의 적절한 표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품의 안전상 적재 및 하역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환적 및 운송 시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로써, 화물의 파손은 물론 운송 물품의 부적합으로 인한 항공기 추락, 폭발사고 발생 등의 위험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품을 운송할 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포장의 크기이다. 이는 상품이 해외로 운송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상품 운송을 위한 나무 상자의 적절한 치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할 때 중요한 문제이다. 도로로 상품을 운송할 때 팔레트와 팔레트 상자의 치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상품의 적재 및 하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적절한 인증서와 크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포장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기타 참고사항

한국에서 폴란드까지의 운송 비용은 40ft기준 2020년 하반기 3,000~4,000 달러였으나, 2021년 하반기 기준 약 1만 3000~1만 4000달러로 큰 폭 상승했으며, 2022년 연초에 이미 1만8000 달러를 기록했다. 물류비용의 변동률이 크고 지속 상승중으로 향후 추이를 계속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 통관절차(Standard Import Entry)

◦ 물품 도착 전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의무(ENS, 도착신고서)

- 2011년 1월 1일부터 폴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 운송수단에 따라 ENS 제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 세관 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사전 신고된 내역을 검토한 후 세관 당국에서는 물품 도착 허가를 통지하지만,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 수입신고(세관 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모든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비역내산 물품은,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 통관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 구비 서류로는 관세청 소정 양식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 검역증명서, 식물 병리학 증명서(식물, 과일), CITES 증명서(야생동물 및 식물) 등이 있다.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세관 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나,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 물자 등의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필요한 EU 인증 등을 구비했는지도 검사한다.

○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관세는 EU 통합이며, 부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3%이다.
-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가 아닌 EU 내 다른 국가일 경우,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세는 즉시 납부할지라도, 부가세(VAT)는 목적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된다.

2)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U는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간이신고방식은 정식 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기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 반입, 자신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 통보하여도 통관 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 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된다.

3) 샘플/전시물건 통관(Sample/Temporary Import Entry)

◦ 상업용 샘플의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위해서는 폴란드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임시 수입 허가증 ATA(Temporary Admission) 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정 날짜에 폴란드에서 재수출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된다. 통관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며, 이는 재수출 될시 수출될 물품의 가치 또는 총 수입관세 및 부가세금과 동일해야한다. 무상 또는 낮은 가치의 상업용 샘플은 일반적으로 샘플의 가치를 확인하는 폴란드 세관에 서면 진술서를 통해 관세없이 수입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의 소유가 된다. 세관 통관을 위해서는 홍보 자료에 “no commercial value”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 전시 물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가 있어야 통관 시 문제가 없다.

통관 시 유의사항

◦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명칭일수록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내 사전전자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이 있다.

◦ 대부분의 수입상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회사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요구해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통관담당자에게 일정한 유효기간을 지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관세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관세납부를 할 경우가 있으며, 서류에 기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발견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과 서류의 일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통합관세 분류번호(TARIC Code)가 적용될 수 있다. TARI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2자리 코드를 추가 부여한 체계이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도록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Schenker Sp z o.o.

주소	Ul. Zwirki I Wigury 18, 02-092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22-7385790
이메일	info-pl@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www.dbschenker.pl

◦ Cargo Sad Service

주소	ul. Osmaska 5 lok. 104, 02-823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603-080-199
이메일	info@cargosad.pl
홈페이지	http://cargosad.pl

◦ Terramar Spedycja Miedzynarodowa Sp. z o.o.

주소	ul. Rotterdamska 3, 81-337 Gdynia Poland
전화번호	+48-58-627-4853
이메일	spedycja@terramar.pl
홈페이지	http://www.terramar.pl

◦ Peko Spedycja Midzynarodowa W. Jankowski, P. Stachura sp.j.

주소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Poland
전화번호	+48-58-323-8888
이메일	spedycjaoffice@peko.pl
홈페이지	http://www.peko.pl

◦ C.Hartwig Gdynia S.A.

주소	ul. Iska 47, 81-310 Gdynia Poland
전화번호	+48-58-772-5000

이메일	chg@chg.pl
홈페이지	http://www.chg.pl

◦ M&M air sea cargo S.A.

주소	ul. Annopol 3, 03-236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22-212-5064
이메일	seawarszawa@mumnet.com
홈페이지	http://www.mumnet.pl

◦ ATC CARGO

주소	ul. Polska 13A, 81-339 Gdynia Poland
전화번호	+48-58-621-3941
이메일	atc@atc-cargo.pl
홈페이지	http://www.atc-cargo.pl

◦ MAERSK POLSKA sp.zo.o

주소	ul. Postepu 18, 02-676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22-541-4250
이메일	wawsal@maersk.com
홈페이지	http://www.maerskline.com

◦ MSC Poland Sp. z.o.o

주소	Plac Kaszubski 17/208, 81-350 Gdynia Poland
전화번호	+48-58-666-1000
이메일	POL-info@msc.com
홈페이지	https://www.msc.com/pol

◦ POLFROST Internationale Spedition Sp. z o.o.

주소	ul. Tyniecka 27/2, 02-615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22-854-1070

이메일	biuro@polfrost.com.pl
홈페이지	http://www.polfrost.com.pl

◦ Polsin Overseas Shipping Ltd. Sp. z o.o.

주소	ul. Armii Krajowej 116/16, 81-824 Sopot Poland
전화번호	+48-58-555-2791
이메일	spedycja@polsin.com.pl
홈페이지	http://www.polsin.com.pl

◦ FM Logistic Polska

주소	ul. Tarczyska 111A, 96-320 Mszczonów Poland
전화번호	+48-46-857- 0001
이메일	marketing-pl@fmlogistic.com
홈페이지	https://www.fmlogistic.pl/

◦ Rohlig Suus Logistics S.A.

주소	ul. Rownolegla 4A, 02-235 Warsaw Poland
전화번호	+48-22-737-7575
이메일	office@suus.com
홈페이지	http://www.suus.com/

◦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Polska Sp. z o.o. sp. k.

주소	ul. Sokolowska 10, 05-090 Raszyn Poland
전화번호	+48-22-717-9797
이메일	customerservice-pl@pl.hellmann.net
홈페이지	http://www.hellmann.net

◦ Raben Logistics Polska Sp. z o.o.

주소	Ul. Zbozowa 1, 62-023 Robakowo Poland
전화번호	+48 (61) 8988800

이메일	poland.info@raben-group.com
홈페이지	http://polska.raben-group.com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법

-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법'은 2018년 4월 30일에 정식 발효된 비즈니스 헌법에 포함되는 법령으로 외국인의 폴란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에 따르면 폴란드 내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출신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출신의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으며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반면 비 EU 국가 출신 국민 중 폴란드 영주권자,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 체류 중인 임시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난민 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의 경우에만 폴란드 국민과 동일하게 경제활동 형태를 선택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 비 EU 국가 출신 외국인 중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폴란드내 개인사업체 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인 등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폴란드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내 투자방식 또는 투자액 제한이 없다.

○ 폴란드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내 투자방식 또는 투자액에서도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폴란드에 투자진출 시 폴란드 내국인을 의무 고용 비율 또는 외국인 고용 인원수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정부 현금 보조금

○ 폴란드 정부 보조금인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1년 3월 25일 폴란드 장관회의를 통하여 수혜 조건이 개정되었다. 동 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양자 간 협약체결 아래 현금 보조금 형태로 수혜 된다. 동 협약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적격 비용과 적격 투자 비용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적격비용은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시 신청이 가능하다. 적격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략 또는 혁신 분야 투자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지원금액

-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 (고용 보조금): 1명 신규 고용당 최소 1만2천 즈워티, 최대 2만 즈워티 (대기업, 중소,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

- 신규 투자 적격 비용 지원 (투자 보조금): 투자금액의 10-20 %

위에 소개된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지역의 낙후 정도 및 실업률 상황, 지역위치(폴란드 동부 및 북동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이 더 높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수혜 적격평가 기준 (양적 및 질적 기준 모두 부합해야 함)

○ 양적 기준

-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기업들 자주 해당되는 전략적 부분(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천만 즈위티 이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4천만 즈위티 이며, 최소 고용인원수는 25명이다.

○ 질적 기준

- 질적평가에 해당되는 주요 기준 내용에는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해외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소재 산업 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된다.

- 질적 기준 평가등급은 투자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개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을 획득해야 하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 6점을 획득해야 한다.

2) 경제특구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 과거에는 제조업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4개의 정해진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되면서 현재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기업 모두 해당)은 폴란드 전국 어디서나 투자금액 조건과 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관할 지역 실업률, 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소 25%(단, 수도 바르샤바의 경우 10%), 최대 50%까지 수혜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경제특구 투자 진출 시 9개 경제특구 지역은 현행 경제특구 지원율보다 5%~15%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돌노실롱스크(Dolnolsk)주, 비엘코폴스카(Wielkopolska)주 등의 경우 과거 투자 지원율보다 감소하여, 현재 최소 25%의 법인세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다.

○ 2022년 1월부터는 법인세 면제 형태의 인센티브 수혜 기간도 변경되어 지역에 따라 10~15년의 기간 동안 투자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세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노실롱스크 주, 비엘코폴스카 주 등의 경우 인센티브 수혜 기간은 10년이며 폴란드 중부, 서북부 지역은 12년, 폴란드 남동부 및 남동부 지역과 같은 저개발 지역은 15년이 적용된다.

○ 폴란드 중앙정부 지원 현금 인센티브 및 경제특구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동시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다.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법인세 모두 신청할 예정이라면 현금지원금 수혜 한도는 3백만 즈위티로 제한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 폴란드에서는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 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국내 및 국제 운수업, 위험물 물류창고 운영,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 투자 진출 시 EU 환경규제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경우, 환경평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EU 환경법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될 경우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자진출 전 해당 생산 공정이 EU환경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환경평가가 통과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특구 투자진출

2022년 기준 폴란드 국토 전체가 경제특구이며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최소 투자비용인 양적조건과 질적평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인세 면제 형태의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1) 최소 투자액(양적조건)

○ 대기업 기준 최소 투자비용

- 1억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 미만 지역
- 8,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100% 지역
- 6,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00~130% 지역
- 4,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30~160% 지역
- 2,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60~200% 지역
- 1,5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00~250% 지역
- 1,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50% 이상 지역

○ 중견기업 기준 최소 투자비용

- 1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 미만 지역
- 8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100% 지역
- 6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00~130% 지역
- 4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30~160% 지역
- 2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60~200% 지역
- 15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00~250% 지역
- 1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50% 이상 지역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또는 R&D 분야 소기업, 영세기업은 투자비용이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인하된다.

(2) 질적조건

-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분야(폴란드 정부 육성책인 고도산업 분야인 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 기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등 투자, 해외수출 실적, 연구 및 개발활동 수행 등 여부) 투자 : 최대 8 점
-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 분야(친환경 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역 소재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공대 등과 협력 여부) 투자 : 최대 5 점
- 위에 열거된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분야와 사회개발 분야 조건 사항에 모두 다해서 경제특구 인센티브율이 20-25%인 경우는 최소 6점, 인센티브율이 30-40%인 경우는 최소 5점, 인센티브율이 50% 지역 투자는 최소 4점을 획득해야 한다.

산업단지

○ 브로츠와프 기술단지

규모	93,000㎡
위치	브로츠와프(Wroclaw)
임차료	○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명칭: Wroclawski Park Technologiczny S.A. ○ 주소: ul. Muchoborska 18, 54-424 Wroclaw ○ 전화: +48-71-798-5800 ○ 팩스: +48-71-780-4034 ○ 이메일: wpt@technologpark.pl

○ 켄지에진 코즐레 화학산업단지

규모	6,700㎡
위치	6,700㎡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명칭: Kdzierzysko-Kozielski Park Przemysłowy ○ 주소: ul. Szkolna 15, 47-225 Kdzierzyn-Kole ○ 전화: +48-77 488 62 15 ○ 이메일: biuro@kkpp.pl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 브로츠와프 및 인근지역
 - 위치
 - 폴란드 남서부 돌르노실롱스크주 소속

- 특징

- 독일 남동쪽 국경과 가까워 독일 제조업 투자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밀집한 지역
- 국립 종합대학, 국립 공대,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20여 개의 대학 소재
- 한국 투자기업으로는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업체들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진출했으며, 2017년 LG화학 배터리 공장 건축을 계기로 LG화학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진출 중
-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으로는 2001년 일본 도요타, 2011년 한국 만도사가 브로츠와프 근경 바우브지흐 경제특구에 투자 진출함
-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75개의 약 70개의 한국기업이 브로츠와프 및 근경 지역에 소재

- 카토비체 및 인근지역

- 위치

- 폴란드 남부 실롱스크주 소속

- 특징

- 폴란드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의 메카
- 국립 종합대학, 국립 공대,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20여 개의 대학 소재
- 독일, 프랑스, 미국계 자동차 및 부품 공장 다수 투자진출
- 체코 현대자동차 공장과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공장이 가까이 위치하여 현대, 기아차 1~2차 벤더로서 한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지속되고 있음(2022년 상반기 기준 총 35여 개의 한국 기업 투자진출)
- 2019년 SK 이노베이션이 폴란드 남서부 동브로바 구르니차 지역에 리튬 배터리 분리막(LiBS) 생산 공장 투자진출 하여 SK사 협력업체 및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23개의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카토비체 근경 중소도시인 조리, 글리비체, 자브제 등에 소재

- 포즈난 및 인근지역

- 위치

- 폴란드 서쪽 비엘코폴스카주 소속

- 특징

- 독일계 투자기업 밀집 지역
- 독일 Volkswagen 완성차 공장, 폴란드 Solaris 버스 생산 공장, 일본 Bridgestone 생산 공장 등이 소재
- 2009년 삼성전자가 포즈난 근경 브론키에 소재한 폴란드 가전제품 사인 Amica 세탁기 생산 공장을 전격 인수한 이후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투자진출이 지속되고 있음
- 국립 종합대학, 국립 공대,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30여 개의 대학 소재

- 오폴레 및 인근지역

- 위치

- 폴란드 남서쪽 오폴레주 소속

- 특징

- 서유럽계 자본 기업 다수 투자진출
- 한국 후성그룹이 대규모 투자형태로 2019년 상반기 투자진출
- 브로츠와프와 카토비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로츠와프와 카토비체 보다 공장 임차료가 다소 낮은 편임

- 슈체친 및 인근지역

- 위치

- 폴란드 북서쪽

- 특징

- 독일 근경 지역이며, 베를린까지 150km 거리로 독일 및 북유럽 기업들 다수 투자진출
- 2021년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진출, 2022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슈체친 인근 폴리체(Police)지역 폴란드 Azoty 그룹 화학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9172.34	15996.3	10852.5	10079.6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2169.49	891.04	1290.21	1820.92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34	36	1,185,440	171	1,162,875
2020	105	22	772,881	134	739,290
2021	125	27	612,713	145	582,01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86	17	1,047,289	114	1,034,562
건설업	19	6	7,666	20	7,511
도매 및 소매업	6	4	3,030	14	3,533
운수 및 창고업	2	1	441	2	441
정보통신업	3	0	3,925	3	3,886
금융 및 보험업	1	0	111	0	0
부동산업	11	4	121,938	10	112,2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2	954	5	59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2	86	3	8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2	9	581,724	96	552,345
건설업	16	7	180,665	13	180,605
도매 및 소매업	9	2	4,900	16	1,112
운수 및 창고업	1	1	200	1	100
정보통신업	2	0	4,065	2	3,783
부동산업	2	1	601	2	6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03	2	12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623	2	61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82	13	459,998	99	460,846
건설업	18	6	24,876	16	24,726
도매 및 소매업	8	0	12,135	17	9,939
운수 및 창고업	2	1	10,001	1	1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690	1	1,690
정보통신업	1	0	90	0	0
부동산업	7	2	103,260	5	84,1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2	131	4	13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5	1	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527	1	525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엔캠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용 리튬배터리 전해액
취급분야	2차전지 및 EDLC용 전해액
모기업명	엔캠㈜

○ 광일이노텍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Fuel Tank Band, Heat Protector, 전기자동차용 부품 Module Plate, Busbar
모기업명	광일이노텍㈜

○ LS전선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광케이블
모기업명	LS전선㈜

○ CJ 제일제당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점
업종	BIO공법으로 생산된 사료첨가제(아미노산, 식물성고단백제품)와 식품첨가제 판매(Taste Enhancer, Amino Acids, Flavor Enhancer, etc)
취급분야	식품 및 생명공학

모기업명	CJ제일제당 유럽법인
------	-------------

○ 회성정밀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
모기업명	회성정밀㈜

○ 영신금속공업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용 볼트, 스크류 및 산업용 볼트, 스크류 제조 생산
모기업명	영신금속공업㈜

○ LG화학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자동차전지 cell(양/음극 + 분리막 등), Module(Cell + 카트리지), Pack(Module + 부품) 생산 및 고객사 제품제공
모기업명	LG화학㈜

○ 세코닉스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램프 부품 생산
모기업명	세코닉스㈜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고무, 플라스틱
취급분야	타이어 수입 판매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 광진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Door module, Regulator
모기업명	광진기계(주)

○ 롯데케미칼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고무, 플라스틱
취급분야	PP,PE,PC,PP compound,PPLGF,TPE 플라스틱 레진제품 생산 및 판매
모기업명	롯데케미칼(주)

○ LS엠트론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모기업명	LS엠트론(주)

○ 만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생산제조
모기업명	만도(주)

○ MCNS 폴리우레탄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업종	화학, 의약
취급분야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System Polyol 과 Isocyanate
모기업명	MCNS

○ 삼성전자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가전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모베이스 전자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용 전자전기부품(KEY SET, SWITCH 등)
모기업명	모베이스 전자(주)

○ 스타리온 브로츠와프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냉장고, 세탁기, 오븐, 자동차 사출, 판금 및 조립 부품
모기업명	성철사(주)

○ 회성전자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LCM(Back Light Unit + Panel) 생산
모기업명	회성전자㈜

○ LG이노텍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TV 및 LED조명용 전자 부품, 차량용 모터 제품
모기업명	LG이노텍㈜

○ 판토스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물류
취급분야	폴란드향 포워딩 수출입, 통관 및 W/D 운영, 유럽내 운송사업 진행
모기업명	판토스(주)

○ 동양전자 브와바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TV CASE, PCB Assembly
취급분야	고무, 플라스틱
모기업명	동양전자(주)

○ 삼성전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현대자동차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LG전자 므와바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LCD TV(LED TV,UD TV,OLED TV),모니터,Commercial display,IVI
모기업명	LG전자(주)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완성차 및 완성차 부품 판매, 자동차 정비/수리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LG전자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TV, 모바일폰,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기업명	LG전자(주)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TV, 핸드폰, 모니터, 가전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철강, 금속, 화학, 섬유, 자동차 부품, 기계플랜트, SOC 환경 프로젝트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내셔널(주)

○ 후성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2차 전지
취급분야	2차 전지 전해액의 전해질
모기업명	후성(주)

○ SK이노베이션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2차 전지
취급분야	리튬 배터리 분리막(LiBS)
모기업명	SK이노베이션(주)

○ CTR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판매지점
업종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취급분야	조향장치 부품, 트레일러 등
모기업명	(주)CTR

○ 에이텍씨앤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IT 업종
취급분야	IT업종 서비스
모기업명	(주)에이텍씨앤

○ 인천국제공항공사 폴란드 지점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 자문
취급분야	폴란드 중앙교통허브(CPK) 자문 서비스
모기업명	인천국제공항공사

○ Poland Legnica Sourcing Center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2차 전지
취급분야	2차 전지 재활용
모기업명	포스코

○ 한국운반기계

진출연도	2022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설비생산
취급분야	공장자동화 설비
모기업명	한국운반기계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폴란드 정부는 2004년 EU 가입과 동시에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어 외국인의 폴란드 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외국 투자기업은 폴란드 내국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에 외국 기업은 폴란드에서 어떠한 합법적 형태의 사업 활동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약이 있다면 폴란드 사업체와 동일한 제약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는 크게 기업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법인(회사), 제한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사, 영업 행위가 불가능한 연락사무소로 나눌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의 경우 모기업의 영업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유한책임 회사 형태 법인의 경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 만큼에 대해서만 유한한 책임이 있어 주주에게 유리한 기업형태이다. 반면 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예: 법인장)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크며 특히 주주의 현지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시 매번 재정지원의 법적 형식(예: 주주총회 통한 자본증자 또는 모기업과 현지 법인 간의 대여금 계약 체결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지사

○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지점은 법인 성격이 없으며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아니므로 지점의 모든 채무는 자동으로 모기업에 부여된다. 또한, 모기업은 지점의 영업활동에 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지점은 관할법원에 정식 등록이 되고 나서야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점도 폴란드 현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점 명의의 단독 폴란드 회계장부도 있어야 하고, 폴란드 현지에 회계사도 고용해야 한다.

○ 설립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지점 주소 결정(모기업이 지점 대신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지점설립 후에 지점으로 명의 변경)
- 폴란드 지점 설립, 지점장 임명, 지점소재지 결정 관련 모기업 이사회 의결
- 관할법원에 지점등록
- 납세번호(NIP) 및 통계청 번호(REGON) 등록 및 번호 발급
- VAT 납세자 등록
- 현지직원 고용 시 폴란드 사회보험공단(ZUS)에 등록

○ 지점의 법원등록 관련 주요 서류

- 모기업 정관
- 폴란드 지점 설립, 지점장 임명, 소재지 결정 관련 모기업 이사회 의결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모기업 법원등기부 등본
- 사무실 임대계약서
- 변호사 위임장 등

○ 법원 제출용 모든 서류는 폴란드 현지에서 한-폴 법원소속 공증번역사에 의해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법인 성격이 없으며 본사 홍보, 시장조사, 마케팅 기능만 할 수 있다. 영업활동 금지되어 만약 영업활동을 할 경우 연락사무소 사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 등록은 폴란드 경제개발부 소속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하며 등록 기간 2년이다. 즉 2년

마다 매번 연락사무소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등록 관련 주요서류

- 등록 신청서
- 모기업 정관
- 모기업 법원등기
- 폴란드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모기업 이사회 확인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등록 대리인 위임장 등

○ 경제개발부 제출용 모든 서류는 폴란드 현지에서 한-폴 법원소속 공증번역사에 의해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 폴란드법상 법인,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인사업체 등의 경제주체 설립 시 반드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관할 기관의 등록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업장 주소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루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최소 2~3년 기간의 임대계약을 맺고 가구부터 인테리어까지 사무실 오픈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근 폴란드에는 코워킹(co-working)스페이스 운영하는 많은 업체가 고객들에게 업무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시 필요한 회사 주소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주소 임대비용은 지역 및 주소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월 임대료는 약 100~400 즈워티(약 3~12만 원) 선이며, 회사주소 임대 외에도 회사 주소로 배송되는 모든 우편물 등의 관리 및 보관 서비스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인 폴란드는 국가 안전, 합리적인 경제 정책, 안전한 투자 환경을 보장한다. EU 가입 이후 폴란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4% 전후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보였다. 폴란드는 자동차·가전제품 및 전자장비 제조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고, 부문별로 숙련된 기술자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는 전국에 1,5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가 있으며 IT 부터 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특화돼 있다. 내수 시장이 크다는 것도 폴란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든다. 코로나 19 대응 폴란드 정부의 폭다운 조치로 경제활동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였고, 2020년 GDP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대로 하락하였으나 탄탄한 내수경제 및 정부의 경제복구 기업 지원금 정책 덕분에 해당연도 폴란드의 경제 성장을 하락률은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점차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 '21년 연평균 약 5.7%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두 국가와의 교역량 감소가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자국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 구밀도가 낮은 곳을 생산 투자지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인력수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투자진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폴란드 남서쪽 지역은 실업률이 낮아 최소 8천만~1억 즈워티(약 240억~300억 원) 이상의 높은 투자비용이 예상되므로 경제특구 투자진 출 고려 시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비용과 질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 요하다.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 투자진출시 진출전에 환경적인 이슈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 하다. EU 환경규제 물질이 사용 또는 배출되는 경우 환경 평가가 매우 까다로우며, EU 환경법에서 규정하 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배출될 경우 폴란드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분쟁해결 현재 폴란드에는 대폴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중재기관 등은 없으나, 기업들간에 분쟁소송은 상사 소송을 통 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분쟁은 언제나 국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서 로 중재법원이 재판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서에 중재법원이 관할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상사중재는 일반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폴란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중재법원은 상공 회의소 관할 중재법원과 폴란드 기업인 연맹인 Lewiatan 중재법원이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폴란드어: S.A)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은행업, 보험업 등의 특수법인 설립과 바르샤바 주식거래소(WSE)에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역시 주주들 또는 단일주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다루어진다.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설립할 수 있으나 폴란드법이나 외국법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단일주주 유한책임회사가 설립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등록과정에만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책임, 운영기구 및 과세에 관해서는 유한회사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조항이 비교적 더 형식주의적이며, 충족시켜야 할 추가 의무들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공개거래 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다르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폴란드 공증인 앞에서 서명돼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고용한 변호사의 권 한으로 변호사에 의해 회사가 설립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법인 설립은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며, 우리나라 투자기업 중 아직 폴란드 현지에 주식회사 형태 로 투자 진출한 예는 없다. 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만큼 정부 및 관계 당국의 감시 수준이 높으며, 관련 의무조항이 많아 중·소형 외 국인 투자기업에는 선호되지 않는다. 회사는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대표되며, 반드시 감사가 선임돼야 한다. 1명 이상의 자 연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은 100,000즈워티이다. 법인 등기 시 신고 자본금의 최소 25%가 출자돼야 하며, 현물출 자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액 출자돼야 한다.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즈워티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폴란드어: Sp. z o.o.)의 주요 특징은 회사가 그 주주들 또는 단일주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주주에게 유리한 회사형태이다.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다. 1명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최소 1명 이상의 이사회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최소 자본금은 5,000즈워티(약 150만 원)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즈워티(약 1만5천 원)이다. 유한회사는 관할 등록법원에 등록되기 전에도 '설립 중의 회사' 형태로 고용, 은행구좌 설립 등 특정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주주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1인 주주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또 다른 유한회사의 1인 주주는 될 수 없다. 회사 소재지와 관련한 해당 지역 관할 법원의 효율성에 따라 법원 등록은 약 3-6주 정도 소요된다.

○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 폴란드 공증인 사무실에서 회사 정관 서명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회사 주소 결정
- 폴란드 현지은행 계좌 개설
- 자본금 납입
- 관할법원에 회사등록 신청서, 납세번호 (NIP) 등록신청서, 통계청 번호(REGON)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제출 일체 총괄 제출
- 회사 법원등록
- 통계청 번호(REGON) 및 납세자 번호(NIP) 발급
- VAT 납세자 등록
- 현지직원 고용 시 폴란드 사회보험공단(ZUS)에 등록

○ 유한책임회사 법원등록 시 필요서류

- 법원등록 신청서
- 폴란드 법인 정관
- 모기업 법원등기
- 주주명부
- 자본금 납입사실 이사회 확인서
- 등록 대리인 위임장 등

○ 법원 제출용 모든 서류는 폴란드 현지 법원 소속 한-폴 공증번역사에 의해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 폴란드에서는 2019년 10월 13일부터 회사 이익을 궁극적으로 영위하는 실소유자(실질 주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CRBR)'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폴란드 법원등기 등록 완료 후 7일 안에 회사 실소유자 등록을 마쳐야 된다. 폴란드에 투자진출 하는 한국기업 또는 현지 한국인 교포기업들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CRBR 등록의무 위반 시 최대 3억 원의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그동안 법인이나 지점 등록은 법원 제공 신청양식서(워드파일)를 기재한 후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행해졌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가 디지털 행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1일부로 온라인 법원등록 제도를 실시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폴란드 내 회사 및 지점등록 절차가 신속화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형태 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초기 설립자본금이 없이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 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 EU 회원국 출신 외국인인 폴란드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비EU출신(예: 한국) 외국인의 경우 폴란드 영주

권을 취득해야만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NGL Legal

전화번호	+48 22 378 75 75
주소	ul. Koszykowa 61B 00-667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ngllegal.com/pl/
이메일	krzysztof.wiater@ngl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데스크 운영

◦ Ernst & Young 폴란드

전화번호	+48-22-557-7000
주소	rondo ONZ 1, 00-124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ey.com/pl/pl/home
이메일	So.Jeong.Park@pl.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소정 매니저

◦ Tias 회계법인

전화번호	+48 71 343 86
주소	ul. Krucza 68/9, 53-411 Wrocław
홈페이지	https://tias.pl/ko/
이메일	office@tias.pl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통역직원 근무

◦ KBZ 로펌

전화번호	+4832 202 4297
주소	ul. PCK 6/7, 40-057 Katowice
홈페이지	https://kbzlegal.pl/
이메일	biuro@kbzlegal.pl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매니저 근무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폴란드는 지난 2000년 4월 기존 환율 체제인 관리 변동환율제(중앙 패리티율 및 $\pm 15\%$ 의 변동 폭 운용)를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으며, 환율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즈워티화(PLN)는 미국과 EU의 통화정책 및 금리 등 국제 자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다른 신흥시장 통화 가치 급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즈워티화의 가치 변동은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은 편이다. 2022년 5월 초 기준 즈워티화 환율은 1유로당 약 4.65 즈워티, 1달러당 약 4.40 즈워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 규제

- 폴란드는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대부분의 경제규제 시스템을 EU 기준에 맞추고 있으며, 외화거래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 다만 폴란드 내에서의 외화 거래 시 중앙은행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등록절차이며 폴란드 내 외화거래 통계 집계를 위함이다. 2002년 10월 발효된 외환 거래법(Foreign Exchange Law)이 외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 거래법은 외환 거래의 유형을 '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 등)과의 외환 거래', 'BIT 국가(폴란드와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비 OECD 및 여타 비 EU 국가와의 외환 거래'로 크게 나누고 있다.

- 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로서 EU가 아닌 국가)과의 외환 거래
 - 이 국가들과의 외환 거래는 자유화됐다. 특히, 거주자(기업 및 개인)는 인가 없이도 이들 국가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 단기 증권 및 파생 상품 발행과 거래, 단기 증권 및 파생 상품 구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들은 외환 관련 인가 없이도 폴란드 증권, 채권 및 단기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범주에 속하는 데다 1989년 폴란드와 투자보호협정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거주자)이나 주재원(비거주자)의 경우 외환 거래와 관련한 제한이 거의 없다. 투자 협정은 소득의 송금을 포함한 투자와 관련한 지급(payment)의 태환 가능 화폐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과실 송금에 대한 제약도 없다. 폴란드 현지 은행에서 한국으로 외환을 송금할 때에는 송금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BIT 국가 및 여타 비 EU 국가와의 외환 거래
 - BIT 국가란 폴란드와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며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BIT 국가와의 외환 거래에는 다소의 제한 조항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BIT 국가에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 국가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으로 제한되는 것 등이다. OECD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이 아닌 여타 비 EU 국가와의 외환거래에서 제한의 범위는 가장 넓어진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기준환율 :1달러=4.40兹워티(2025.05.02)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4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95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4.8
비고	○ 2022년 3월 기준 기업 부분 평균 임금 6,665.15 兹워티 (전년동기대비 12.4% 상승) ○ 2022년 법정 최저임금 3,010 兹워티(월급), 19.70 兹워티(시급) * 연간 폴란드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달러 및 유로대 兹워티 가치가 하락하여 달러로 환전된 임금액이 낮아지고 있는 현황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고용주가 폴란드에 소재하고 있고 근무 장소가 폴란드인 경우 고용계약의 준거법은 폴란드 노동법이다. 폴란드 노동법상 가장 중요한 고용계약의 종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계약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계약 모두 우선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직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다.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수습직 계약은 한 번 밖에 체결할 수 없다.

○ 현 폴란드 노동법에서는 한 직원과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총 3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비정규직 계약체결 횟수도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4회째 맺는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정규직 계약이 된다. 단, 위의 규정의 예외로서 해당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사외이사 채용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 있어 33개월을 초과한 장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장기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채용의 경우에는 위의 3회 계약 또는 3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최소한 계약 당사자, 계약종류, 근무내용, 임금(반드시 gross 액수로 표기), 휴가 및 근무 시작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이 서면 형태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늦어도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첫날에는 고용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를 맺은 후 고용주는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노동법이 규정하는 고용조건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피고용인이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고 근무가 폴란드에서 이루어질 때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폴란드어 사용 법령 제8조 1항). 그러나 외국인 직원이 폴란드어를 모를 경우 다른 언어(예: 영어 또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으나 이 경우라도 반드시 폴란드어본 계약이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이중 언어 고용계약 시 계약 내용 해석에서 발생한 언어 관련 분쟁 시 폴란드어 계약 해석에 우선순위가 있다.

근로시간

○ 폴란드에서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하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고용주는 60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인에게 점심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심시간 휴식에 관한 규정은 고용주가 임의로 회사 내부규정 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근무 시간 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인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비상 수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통상임금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부가적 임금을 받는다.
 -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로서 근로 시간표상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일이 아닌 경우, 근로 시간표에 따라 근무한 일요일이나 공휴일 대신 근로자에게 주어진 보상휴일에 근로한 경우 급여의 100%
 - 상기일 이외의 시간외노동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의 50%
 - 기준기간의 평균 주간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외 노동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의 100% 지급, 단, 이러한 기준이 근로자가 상기한 점에 언급된 보충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시간외노동시간의 결과로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한 경우, 사용자는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가

- 연차 유급휴가
 - 모든 근로자는 매년 다음과 같은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0일 : 근로자가 10년 미만 근무하였을 때
 - 26일 :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휴가를 고용주는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해당연도 휴가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누적된 휴가는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
- 병가
 - 직원이 질병으로 병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만 50세 이상 직원의 경우 연 14일까지 급여의 80% 해당하는 병가 급여를 지급한다. 임신, 출퇴근 시 사고나 장기 기증 등으로 병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 33일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여성 직원은 출산 후 20주(5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0주의 출산휴가 중 첫 14주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6주는 배우자가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마친 여성은 추가로 32주(8개월)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폴란드 현행법상 한 자녀 출산 후 최대 52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직원에게 부여된다.
 - 32주의 부모휴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부여되며, 부모가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34주의 부모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는 유급휴가로 급여는 폴란드 사회보험공단(ZUS)에서 지급된다. 급여액은 총 52주간의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동안 80%의 동일한 급여가 제공될 수도 있으며, 또는 처음 20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의 100%, 추후 부모휴가 동안 60%의 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는데, 해당 여성은 이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 후 휴가 기간에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로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로 파견시킬 수 없다. 야간에 근로하도록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여성근로자의 임신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바꾸어 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그 근로자를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어야 한다.

- 육아휴직(무급휴직)

- 최소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36개월의 육아휴직권을 가질 수 있다(자녀가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 18세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 휴가는 직원의 신청 하에 지급되며 휴가 기간을 총 5번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동안 해당 여성은 폴란드 사회보험공단(ZUS)의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복귀할 직무가 사라진 경우에는 이전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고

- 고용계약의 해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 해고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면 해고 통지 기간은 고용계약의 종류 및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피고용자는 사전 통지 기간부터 해고일까지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된다. 해고 통지에는 해고의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 해고 서면 통지를 접수한 시점부터 해고 통지 기간이 발효되게 되는데, 실제 해고는 서면 통지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 이후에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 고용인은 해당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6년 2월 22일부터 개정 노동법이 시행됐는데, 고용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정규직, 수습직, 비정규직에 무관하게 계약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6개월 미만 : 2주
- 계약 기간 6개월~3년 미만 : 1개월
- 3년 이상 : 3개월

- 수습직의 경우 해지 통보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주 미만 수습직 : 3일
- 2주 이상 수습직 : 1주일
- 3개월 수습직 : 2주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서면 통지를 할 수 없다.

- 피고용자가 연차 휴가, 출산 또는 육아 휴가일 경우
- 의사의 진단에 의해 병가 중일 경우
-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년 임기가 4년 이내인 경우
- 임신 중인 경우

- 반면, 고용주가 해고 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심각한 불이행(근무지 내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 불이행 등), 고용 기간에 명백한 범죄 행위, 그리고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 고용계약 기간 중의 범법, 범죄가 명백한 것이거나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 이러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고용주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지속된 질병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단,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질병 등으로 총 3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 치료비 등 혜택을 받았을 때
-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일 때 등

퇴직금

폴란드 법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고용해지의 사유가 직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예: 관할 부서 해체)이며 고용주가 최소 20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는 직원의 고용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해당 직원 3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 의료보험
 - 의무가입, 임금의 9% 근로자 납부
- 질병보험
 - 의무가입, 임금의 2.45% 근로자 납부

고용보험

폴란드 실업보험에 해당, 의무가입, 임금의 8%(고용주 6.5%, 근로자 1.5%) 납부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금의 1.67% 고용주 납부

국민연금

폴란드 퇴직보험에 해당, 의무가입, 임금의 19.52%(고용주 9.76%, 근로자 9.76%) 납부

기타

- 폴란드 고용기금, 임금의 2.45% 고용주 납부
- 직원급여보장기금, 임금의 0.10% 고용주 납부
- 폴란드 개인연금제도(PPK)
 - 폴란드 정부는 '고용자본계획(폴: Pracownicze Plany Kapitałowe, PPK)'이라는 명칭의 개인연금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동 제도는 해당 고용주가 PPK 관리계약(고용주와 연금운행사 간의 관리위탁 계약)과 PPK 운영계약(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고용주가 연금운행사와 운영위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의 2%, 고용주가 1.5%를 부담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최대 4%까지 부담할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개인연금 계좌 개설 시 개설연도에 250즈워티(약 7만 4천 원)를 지원하며, 그 후 매년 240즈워티(약 7만 1천 원)씩 지원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폴란드 법정 법인세율은 19%이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9%의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원을 자본거래에 의한 소득(예: 이익배당, 자본증자, 현물출자, 주식매각 등)과 기업 활동에 의한 소득(예: 판매 매출)으로 나누어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 폴란드의 개인 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은 유한 또는 무한 조세 책임을 갖게 된다. 특정 개인의 조세 지위(tax status)는 개인이 폴란드에 '거주지'(place of residence)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폴란드에 거주지가 없는 개인(주로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인식되어 유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반면, 거주지가 있는 개인(주로 내국인)은 거주자로 인식되어 무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과 이득(benefit)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 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possible deduction from income)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자연인에 대한 기부는 제외, 2005년부터 소득의 6%까지 인정)
- 폴란드 사회보장제도 관련 납부금 등

○ 또한, 과세액에서 공제(possible tax deduction)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폴란드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건강보험 산출 표준의 7.75%까지)
- 자선 단체에 대한 헌금(최종 과세액의 1%까지) 등

○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폴란드 개인소득세는 연간 개인소득 120,000즈워티 이하일 경우 17%가 적용되며, 연간 소득이 120,000즈워티를 초과할 경우 32%가 적용되고 있다.

○ 2019년 8월부터 26세 이하 직원의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 부가세(VAT)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폴란드의 규정은 EU에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됐다.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조세이다. 법인은 연간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돼야 한다. 부가세 기본 세율은 23%이며, 이 세율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돼(reduced VAT rate) 과세되며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 : 기본세율, 대부분 품목에 적용
- 8%, 5% : 일부 식품, 약품 및 보건 관련 제품/비료, 일부 아동용품, 호텔 및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 일부 수송 서비스, 도시 서비스(상수, 하수처리, 도로 유지 등)
- 0% : EU 역내 물품 공급, 제품 수출, 일부 국제 운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서적 및 특정 잡지, 선박 및 항공기용 일부 물품

○ 수출 기업은 수출 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지불된 구입 부가세(input)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최대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특별소비세

- 소비세는 자동차, 전기, 연료, 담배, 주류 등에 주로 부과된다. 주요 품목의 소비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2,000cm³ 이하 엔진: 자동차 시장가격의 3.1% 소비세 부과
 - 2,000cm³ 초과 엔진: 자동차 시장가격의 18.6% 소비세 부과
 - 전기 : 1 MWh 당 4.60 PLN 부과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디젤류 1,000 리터 당 1,104 PLN 소비세 부과 및 소매 판매세 면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가솔린 1,000리터당 1,413 PLN 및 소매 판매세 면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LPG 1000kg당 387 PLN 소비세 부과 및 소매 판매세 면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담배 : 1,000개비 당 367.36 PLN 및 최대 소매 가격의 32.05% 부과 (2022년 1월 1일부터)
- 맥주 : 완제품의 1 °Plato 당 9.43 PLN (2022년 1월 1일부터)
- 와인 : 완제품 1hl 당 228.10 PLN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5월 31일 이후 디젤류, 가솔린, LPG 소비세 가격 및 소매 판매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존 규정이 더 연장될 가능성 존재

기타

- 원천소득세
 - 폴란드 회사(법인)가 주주인 외국 주주에 지불한 이익배당금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 국내법이 규정하는 이익배당 시 적용되는 원천소득세율은 19%이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아래 10% 또는 5%로 인하 적용될 수 있다. 폴란드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는 한국 주주가 한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징수세율이 5%로 인하되어 적용될 수 있다.
- 표준회계감사 파일(Standard Audit File, 축약 SAF) 제도 도입
 - OECD의 표준지침에 근거해 폴란드에 도입된 SAF 제도란, 납세자가 조세기관의 회계감사 시 표준화된 전산 회계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 파일에 적용되는 주요 데이터 항목은 은행잔고 내역, 은행계좌 송금 및 입금 내역, 창고관리, 재화 또는 용역 내역, 단가 등(VAT 계산서, 인보이스 등)으로 모든 기업은 폴란드 재경부가 제시하는 SW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파일을 적용해야 한다. 표준회계감사 파일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에까지 모두 적용되고 있으므로, 폴란드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관련 제도 내용과 유의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감사 파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폴란드 조세법 제262조에 따라 최대 2800즈워티(약 722달러)의 벌금형과 조세 형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최대 17,769,600즈워티(약 458,416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이사회 임원진(법인장, 이사, 회계 담당자 등)에 법적 책임조치가 부여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폴란드는 1920년부터 법률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해왔으며, 근대에 와서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IPL) 같은 지식재산 관련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와 같은 국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2021년 현재 폴란드의 등록 및 보호 법규는 지식재산법(IPL),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 등이 있다. 지식재산법(IPL)에서 상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그리고 지리적 표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할 경우 민사 및 형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 외 등록 상표, 회사명, 부정경쟁 행위,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불특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품 또는 그 장식의 선, 외관, 색채, 형태,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부터 생기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및 상품 또는 포장의 3차원 형태, 소리 등 다른 사업체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활동의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한편, 폴란드는 최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IP 전문법원은 바르샤바, 그단스크, 포즈난, 루블린, 카토비체 5개 지방법원과 바르샤바, 포즈난에 위치한 2심 항소법원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전문법원은 유럽연합 상표, 디자인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그 중 바르샤바 IP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품, 실용신안, 집적회로 지형, 식물 품종 및 회사 영업 비밀(기술적 성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 특허청의 결정(상표 또는 산업디자인의 무효와 관련된)에 관한 일부 사건은 기존과 같이, 바르샤바의 주 행정 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 심판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이 아닌 폴란드 특허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폴란드는 2004년 3월 1일 유럽 특허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유럽 특허기구의 일원이 되었고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 청산은 지분 매각에 비해 계약조건이 많고 소요 시간이 길지만, 사업 여건상 청산이 유리한 경우 혹은 정관상 유한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점의 경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산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특히 회사 전체 또는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청산을 선고하는 날부터 회사의 재산은 법정 관리인이 운영하게 되며 채무자는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게 된다.

○ 폴란드 투자기업 청산 절차

- 청산결의 관련 주주총회 소집 및 청산대리인 선임

- 기업청산 공고 및 채권자 소환

- 자산매각

- 채무상환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보고서 제출

- 법원에 회사 폐업 등록

- 법원의 폐업 등록 결정문 발급

○ 청산결의 주주총회 및 청산대리인 선임

- 주주총회를 통한 청산 결의는 유한회사의 경우 총 의결권의 2/3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1인 주주 기업인 경우에는 1인 주주가 단독으로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 청산의 의결 후 주주들은 청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현 경영진이 청산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 청산 공고 및 채권자 소환

- 주주총회에서 청산에 관한 의결 후, 회사는 즉시 청산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청산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채권자를 소환해 채권 상환대상의 상환 순위를 결정한다. 채권 상환 순위는 폴란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임금, 단기 매입채무,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부채 등의 순으로 결정한다.

○ 자산 매각

- 청산 대리인은 기업의 자산을 파악, 정리한 후 매각한다.

○ 채무상환

- 청산 대리인은 정리, 매각된 자산을 법에 정해진 채무 상환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무가 다 지급될 때까지 하위순위 채무는 상환될 수 없다.

○ 잔여재산 분배

-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전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으며, 유한회사의 경우 청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식회사의 경우 청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산 분배가 불가하다.

○ 청산보고서(Liquidation Report) 제출

- 모든 자산분배가 완료된 후, 청산 대리인은 청산보고서(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시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의결된 청산보고서는 해당 등기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등기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등기 말소로 기업 청산이 완료된다.

○ 관련 세금 정산

- 등기법원에서의 법인 말소 이전까지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 청산의 경우, 자산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19%, 법인세율)가 부과된다.

○ 법인세

- 기업 청산 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이 의결된 날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것과 청산 의결일로부터 실제 청산 완료일까지 청산절차 진행 중 발생한 법인 명의의 소득에 대한 것 2가지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이 의결되면, 의결일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한 후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 완료일이 정관상의 기준 회계연도 말 전에 오는 경우 청산 완료일을 기준으로 청산 중 발생한 법인세 납부신고를 하며, 청산 완료일이 회기 말 이후일 경우 우선 기준 회기 말에 중간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청산 완료일에 마지막 법인세를 신고한다.

○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과세

- 청산 후 분배된 잔여재산은 배당으로 간주(의제배당)돼 취득원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19% 법인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소득세에 대한 세율 감면 혹은 전액 면제가 된다.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규정에 따라 법인 주주로서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 설립되어 있으며, 청산 대상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스위스 법인의 경우 25% 이상)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한-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한국인(법인 포함)에게 분배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의 차액에 10%의 소득세만 부과, 법인 주주인 경우 청산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 시 잔여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5%로 감세한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EU 회원국 중에는 여섯 번째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3,800만 명을 넘는 인구와 경제 규모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
- 폴란드의 1인당 GDP는 약 15,656 달러이며, PPP 기준으로는 약 34,264달러로 구매력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
-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또한 고령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5명 미만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IMF〉

소비 성향

○ 과거 폴란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만을 구매 대상으로 고려했다면, 최근에는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효능 등 다양한 측면을 살피며 구매하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한 예로 오가닉 상품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때로는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다소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계절성 세일 기간에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6월 1일 어린이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트렌드로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들 수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파격세일을 하여 소비자들이 급격히 소비를 확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과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필품의 경우 아직도 폴란드 소비자에게 있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폴란드 소비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본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보다는 그동안 써왔던 제품을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제품이 시장을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신제품들도 파워블로그, SNS 인플로언서, 상품 평가 등으로 쉽게 제품을 이해하도록 빠르게 홍보가 되고 있어, 역시 과거보다는 신제품에 대한 선택이 빨라지고 있다.

○ EU 가입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세를 이어옴에 따라 복지수준 향상,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웰빙 선호 등 독일 및 인근 선진국형 소비패턴을 따라가는 중이다. 특히 자녀수당(Family 500+), 학용품 수당(300+) 등 정부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형 가전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하면서 유기농 식품시장도 커지고 있다.

○ 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된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이 2020년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요일에 상거래가 전면 금지(소규모 개인 소매점 예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시장 크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절정 기간이었던 2020~2021년 기간, 락다운 및 사회적 거리두기, ICT 기술 발달, 인터넷 보급률 증가, 모바일 기기 사용 인구 증가, 다양한 결제방식 등장 등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물류 비용 상승, 폴란드 즈위티화의 평가 절하 및 세계경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상승 하므로 2022년 상반기 동안에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다. 폴란드 올 해 8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6.1%를 기록하여 1997년 3월 16.6%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경기에 계속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식료품 등 기초생활품목들의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 2022년 4분기와 2023년 상반기까지 소비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의 회복 여하에 따라 소비시장도 회복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품 이미지

◦ LG, 삼성, 현대, 기아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덕분에 한국산 제품은 첨단기술이 탑재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폴란드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 삼성은 제품 외에도 지역 발전 등 CSR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좋은 기업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긴 보증기간 제공하고, 유로 2012 축구대회 후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분야에서 삼성, LG가 2011년 이후 줄곧 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LG, SK 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배터리 및 핵심소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브랜드 이미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 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제품은 주로 원부자재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영화 및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폴란드에 확산되면서 K-Beauty, K-Food 브랜드의 폴란드 입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 수출입 관행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폴란드의 모든 수출입 규정은 EU 규정에 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을 요하는 설비 제품의 경우 수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원부자재는 수입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나,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책임을 질 중간 수입상을 끼고 수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조사들도 많이 있어 수입상과의 거래가 용이한 편이다. 일부 수입유통상은 수입한 상품을 인근 유럽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수입상이나 도매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를 하기도 한다.

○ 스톡 구매 방식을 선호

- 국내 시장의 불안정, 대량 주문 생산에 필요한 자금력 부족, 소량 다품종 구매 등의 요인으로 스톡 수입 방식이 성행한다. 디자인, 패션 등 소비 행태가 자주 바뀌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에 해당한다.

○ 불법적 거래에 주의

-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 관세 및 부가세 절감을 위한 이면계약과 거래 대금의 과소신고(Under-Value Invoice) 요구도 있다.

○ 대금 결제 방식

-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 동유럽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바이어들은 결제 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 거래(D/P, D/A)를 선호한다.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수용하기도 하나, 거래가 누적되면 현금 분할 지급이나 외상 거래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해상 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 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L/C 개설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 거래 요구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최근 몇 년간 폴란드에서는 간혹 스피어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금 결제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피어피싱은 상대방 바이어를 사칭한 해커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정정보 탈취 등의 수법으로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내역을 파악한 후, 새로 변경된 은행계좌(사기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역 거래자들이 통상 사용하던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폴란드 은행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라는 해커의 피싱 메일을 받고 폴란드 사기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싱계좌에 송금한 후 전화·팩스 등을 통해 거래처에 확인하기 전에는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인지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송금된 금액의 회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대금을 송금한 한국 거래은행에 먼저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폴란드 은행에서 해커가

송금액을 이미 인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직접 폴란드 은행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폴란드 은행법상 고객정보 보호의무가 있어 은행에서 임의로 판단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으며 계좌주 해커의 개인정보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은행인 한국 측 은행에서 중개은행 또는 폴란드 은행에 피싱계좌 사실을 알리면 은행 간의 공신력으로 인해 현지 폴란드 은행은 경찰에 신고해 피싱계좌를 곧바로 정지시킬 가능성이 커지므로 한국 측 은행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송금된 금액이 다행히도 해커에 의해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좌 정지 후 현지 변호사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폴란드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만 수사절차를 거쳐 송금된 금액을 재송금받을 수 있다.

- 사전에 스피어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결제 관련 주요 정보 수신 시 이메일이 아닌 반드시 전화 또는 팩스로 재확인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간 업무 연락에 이용되는 이메일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PC 점검 보안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피싱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한국 측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및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무역 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업체의 홈페이지 조회보다는 법원등기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 검토해야 하며, 회사 주소만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일 수도 있으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볼 것을 추천한다.

○ 판매 및 유통구조

-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유통회사가 적어 유통구조가 취약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지방상권이 발달해 있다. Cash&Carry 스타일의 도매 유통이 많은데 높은 이자율(연 20% 선)에 따른 소요 자본조달이 애로사항이 되고, 고율의 임차료 등으로 도소매업체의 장기적 안정 경영 기반이 취약하다. 많은 상점은 소유주인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임대, 리스 형식으로 운영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상호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시간약속을 신뢰감 형성에서 매우 중요시해서 미팅에는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늦을 경우 사전 꼭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폴란드어로 남자의 경우 'Pan(판, Sir의 의미)', 여자의 경우 'Pani(파니, Madam의 의미)'로 이름 대신 상대를 부르면 문화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로 인사하고 상담후 헤어질 때도 악수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 상담 전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으로 받아들여지며, 되도록 명함을 먼저 건네는 것이 좋다. 대부분 영어로 통용되기 때문에 영문 명함이면 충분하며, 폴란드인들은 미팅할 때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각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명함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다.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을 구사하거나,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 인물들에 관해 이야기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위인으로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쇼팽(피아노의 시인), 퀴리 부인(노벨상 2회 수상),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언급하면 좋다. 그러나 한국에 잘 알려진 자유 노조 지도자 바웬사에 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 상담할 때는 바이어를 고객으로서 존중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정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파트너와의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거래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기 2~3개월 전에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잡는 방법도 있다.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 계획이나 전시품목 샘플을 미리 보내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를 앞에 두고 동료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은 큰 실례이므로 삼가야 한다.

○ 바이어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에서는 대화하면서 눈길을 피하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바이어를 똑같이 존중해야 하며, 직원 수가 적다는 등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폴란드에는 직원 숫자가 적다고 해도 큰 매출 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많다. 바이어와 상담 후에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화제로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를 동유럽이라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므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중부유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코나 헝가리 등의 국가와 동반대열에 올려 언급해도 무난하나 과거 공산주의를 겪은 폴란드 동남부 인근 국가들과는 비교를 삼가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폴란드인은 내일의 100원보다 오늘의 10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늘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을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 생소하게 받아들여진다. 잠재 파트너를 설득할 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설득이 쉽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과 빠른 이윤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협상해나갈 때 한 번에 끝내려 서두르지 말고 여러 번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폴란드 업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가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미팅은 되도록 근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는 것이 좋다. 또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속을 잡는 것을 꺼릴 수 있어, 비즈니스 출장 계획시 폴란드 공휴일 여부를 확인하고 미팅 여려인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일년 중 여름 휴가기간인 7월과 8월과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엔 비즈니스 미팅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 출장 계획시 신중해야 한다. 비즈니스 복장은 정장이 적절하며, 청바지나 평상복은 비공식 만남이 아닌 경우 실례가 될 수 있다. 저녁에집이나 접대에 초대 받은 경우 격식있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 꽃 선물은 친구와 지인 사이에 가장 흔하고 좋은 선물이며 꽃의 경우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llegro(www.allegro.pl)

- 개요: 1999년 최초로 온라인 경매사이트 Allegro로부터 시작되어, 지난 몇 년 동안 폴란드의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성장해왔다. 현재는 1,4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36%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14만명 이상의 판매자가 있으며, 최근 폴란드 최대 가격비교사이트 ceneo.pl와의 합병으로 Allegro의 규모가 더 커졌다. 동 플랫폼은 폴란드를 비롯하여 유럽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Allegro는 1999년 초기에 경매사이트로 설립되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상거래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배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2020년 기준 매출규모는 약 10억 3,900만 달러(1,039 mln USD)에 달하며 고용인원의 경우 직접고용만 약 2,8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 특징: 알레그로 스마트(Allegro Smart!)라는 회원 제도를 통해 최소 40PLN(약 11달러)이상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소포 보관소 기반의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1년 9월부터 알레그로 페이(Allegro Pay)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매 후 30일 동안 결제 연기, 3개월내 3회 분할결제 혹은 5, 10, 20 개월내 5회 분할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2) Zalando(www.zalando.pl)

- 개요: Zalando는 독일 Zalando Operations GmbH사가 모기업으로, 폴란드 시장을 겨냥하여 폴란드어 사이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2008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이후 폴란드를 포함하여 2,9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6년 폴란드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폴란드어 사이트 및 로지스틱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운영해왔으며 연 매출 2020년 기준 약 9,600만 달러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 특징: 2021년 8월부터 폴란드에서 주문 배송 후 최대 30일간 결제를 보류해 주는 후불결제 시스템을 시작하였다. 고객은 물건 구매시에 지금 결제와 나중 결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최대 30일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

3) Alibaba/AliExpress(www.aliexpress.pl)

- 개요: 중국기업 Alibaba가 모회사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많은 폴란드 소비자들과 폴란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폴란드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 특징: 폴란드 구매자들에게는 2주내 배송을 보증하고 있다. 또,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4) Amazon (www.amazon.pl)

- 개요: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랫폼 아마존의 폴란드 법인이다. 2012년부터 폴란드시장에 투자를 시작하고 최근 amazon.pl 플랫폼을 출시하였다. 폴란드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2500 개 이상의 업체들이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942억 달러이다.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공식 집계 없으나 아마존 보도에 의하면 폴란드 내 아마존 관련 전체 고용인원은 약 23,000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판매 품목: 도서에서부터 패션, 다양한 생활용품 등 대부분의 소비재를 취급한다.
- 특징: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경우 40 PLN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30일 이내 무료반품이 가능하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타사에서 배송한 제품의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해 아마존 반품 정책을 준수해야하나 반품 비용은 각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품 정책을 확인해야한다.

5) Eobuwie.PL S.A. (www.eobuwie.pl)

- 개요: 신발 제조 및 판매업체 CCC S.A.사 소유의 인터넷 판매점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출 규모의 경우 2018년 기준 267억 달러, 고용인원은 250명 이상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패션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고급 브랜드 제품에서부터 저렴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제사정,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이 넓다.

- 특징: 100 PLN 구매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국내 배송비가 무료이다.

6) Morele.net (www.morele.net)

◦ 개요: Morele.Net은 전자.가전 제품 유통 부문에서 폴란드 전자 상거래 시장의 리더 중 하나이다. 현재 morele.net 및 파트너 매장에서 주문한 제품은 abka 및 Freshmarket 매장, Poczta Polska 지점, Orlen 체인의 주유소, Ruch 매장을 포함하여 폴란드 전역의 거의 15,000개 위치에서 개별수령가능하다. 이 회사는 또한 amfora.pl, buduje.pl, digitalo.pl, hulahop.pl, matoria.pl, Mebleuje.pl, ubieramy.pl 및 presto.pl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상점을 관리한다.

◦ 설립연도 및 매출: 2011년에 전자.가전 인터넷 전문점으로 시작했다. 현재도 전자.가전이 주력 품목이며, 일부 식료품 및 잡품도 취급한다. 2020년 기준 연매출 2억2608만 달러이며, 250명 이상의 고용인원이 있다.

◦ 특징: Morele MAX라는 프로그램으로 회원제로 일정 금액 지불하면 39.99즈워티 구매에 무료배송 가능하다. 그 외 Morele MAX 회원이 아닐지라도 199 즈워티 구매자에게는 무료배송을 보장한다. 반품 규정은 Morele 자체 품목은 30일 이내, 타 업체 품목은 유럽 규정에 준하여 14일 이내 반품 보장한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 현지화 전략과 적극적인 투자로 폴란드 시장 진입 성공
 - E사는 유럽지역 고객사 확보를 위하여 비용이 저렴한 중부유럽 국가중 한 곳에 동 사 법인생산 설립 및 물류거점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바르샤바 무역관은 폴란드 투자진출의 장점 및 투자 방법, 투자시 유의사항, 자동차 부품 시장 정보, 물류창고 오피스제공 등 심층적으로 투자 지원하여 고객측이 폴란드를 투자지로 신속하게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바르샤바 무역관에서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 위험도가 따르는 생산법인으로 처음부터 투자하는 것 보다는 초기에 판매 법인을 설립한 후 향후 생산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전한 투자방식을 권하였다. E사는 폴란드 판매 법인을 통해 폴란드 국내 및 유럽시장 전체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고,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폴란드 현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생산법인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
 - 2022년 상반기 부터 동 사는 폴란드 판매법인 설립과 동시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대폴란드 및 대유럽 수출과 직결 시 신규 수출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각종 특허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현지 화학공장 건축 하도급 업체로 투자진출 성공
 - A사는 정유, 석유화학, 조선, 수·화력·원자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기지, 장거리배관 등의 중화학공업과 기반시설의 안전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이다.
 - 건설시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파괴 및 안전검사 분야 하도급 업체로 활발히 투자진출 하고 있다.
 - 2020년 한국 H사가 폴란드 국영 Azoty 그룹 폴리체(Police) 소재 화학공장 건설 수주에 성공하면서 A사 비파괴 검사 부분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어 폴란드에 지점을 설립하여 투자진출 하였다.
 - 바르샤바 무역관은 지점설립 지원 및 현지 비파괴 업체 시장조사, 수십개의 현지 비파괴 업체들과의 미팅 등을 밀착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성 있는 폴란드 로컬 업체들을 하도급 업체로 고용하고 있다.
 - 2022년 현재 A 사의 폴란드 지점은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폴란드 내에서의 사업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칠전팔기 정신으로 유럽 시장 개척에 성공
 - S사는 블록 등 콘크리트 제품 생산에 쓰이는 몰드베이스(철제 받침)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4년 설립 때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었고 2010년부터는 바르샤바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해 폴란드 시장을 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다.
 - 폴란드는 200여 개의 콘크리트 제조업체들이 활동하는 등 유럽에서 콘크리트 제품 생산규모로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S사 입장에서 반드시 열어야 할 시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어렵게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관계를 진전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어 바르샤바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S사는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만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는데, 특히 기술적으로 바르샤바무역관 전담직원이 깊숙이 관여해 첫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 다음으로는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었는데, S사는 유럽에서 신생업체로 인지도가 낮았고 품질은 뛰어나지만 값싼 철제 몰드베이스를 취급하는 탓에 가격에 민감한 폴란드에서는 바이어 발굴이 쉽지 않았다. 이에 무역관은 유럽 내 개최되는 주요 전시회에 나가 S사의 이름을 알렸고, 결국 2019년 폴란드 ICCX 전시회에서 콘크리트 제품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B사를 만나 2건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B사를 통해 C사를 소개받았는데, C사는 EU기금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볼 것을 S사에 제안하였고, 무역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9년 8월 EU자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 최근 유럽 경기가 하강세로 돌아서면서 설비투자 시장도 축소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은 강화되는 추세로 많은 기업이 나무 플라스틱에서 철제 몰드베이스로 변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S사는 기존 설비에도 도입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수요에 부응해 지속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폴란드 지점 설립 및 현지 유통망 채널 확보를 통한 전략 거점 마련
 - 자동차용 부품 제조 중견기업 C사는 전 세계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
 - 폴란드의 경우 중고 자동차 수요가 많아 Aftermarket 시장이 발달 되었으며, 특히 최근 공유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정품보다 저렴한 공용 부품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C사는 적절한 시기에 투자진출 할 수 있도록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협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 C사의 폴란드 지점은 법원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 되고 법원 등록서류도 잘 준비가 된 상황이었지만, 2020년 1월 갑자기 관할 법원이 지점 설립을 기각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 C사는 지점의 법원등록이 지연되고 C사가 고용한 로펌과의 원활하지 않은 업무진행으로 바르샤바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무역관은 법원과의 연락을 통해 지점 신청서 기재 내용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 무역관은 법원의 공문 및 변호사의 의견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여 C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원과의 연락 후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C사에 수시로 제공해 신뢰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재차 수정된 등록 신청서 제출 후에도 무역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관할 법원에 전화하여 C사 지점의 신속한 법원등록을 간곡하게 요

청하였다. 마침내 지점 등록 신청 약 3개월 만인 2020년 3월 10일 등록이 완료되어 C사 폴란드 지점은 현지 폴란드 직원들의 채용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 C사는 자동차 부품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시장 진출뿐 아니라 폴란드를 거점으로 한 중동부 유럽에서 발칸유럽까지의 시장 확대의 중장기 사업 비전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다.

○ 유럽 티백(tea bag) 산업 진출의 성공적인 첫 출발

- T사는 25년간 티백 사업을 꾸준히 이끌어오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하여 다시백, 삼각티백, 부자재 및 제조 관련 설비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세계 20개국 수출로 서비스 및 품질을 인정받아 온 기업이다.

- T사는 유럽 소재 기존의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처들을 지속 발굴하여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유럽 국가 중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폴란드에 직접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T사는 투자진출은 확정하였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바르샤바 무역관은 십여 곳의 현지 부동산 회사를 발굴하여 직접 연락해 임대 오퍼를 조사하였고, 두 달간의 노력 끝에 슈체친 지역에 T사가 희망하는 조건의 공장을 찾을 수 있었다.

- 바르샤바무역관은 공장 임대 오퍼 발굴과 함께 법인설립 절차,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 현지 인력수급 방법 및 절차, 제조업 임금정보, 슈체친 생활 정보에 대한 자세한 투자 자료를 제공하였다.

- T사 폴란드 법인은 2019년 중 약 3개월 동안 생산 시설 및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을 무사히 마쳤으며, 생산공장 투자진출을 통해 향후 유럽 현지시장 접근성이 더욱 수월해지고 가격 경쟁력도 높아져 유럽 내 수출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시장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생분해 관련 부자재의 개발에 수년간 매진하여 고품질의 필터를 전문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환경보호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시장에서 T사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풍부한 국내외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시장에서 기술력 인정 이끌어

- P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제철소 건설을 통해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1994년 기업 출범 이래 연평균 14%의 성장을 이뤘던 글로벌 종합건설회사이다.

- P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내 발전 플랜트 사업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고, 202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4,9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하였다.

-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는 폴란드 정부가 수도 바르샤바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로, P사는 2020년 10월 22일에 바르샤바 폐기물 관리공사로부터 폐기물 소각로 EPC 사업의 낙찰을 이뤄냈다.

- 바르샤바 무역관은 P사의 수주를 위해 열린 무역관 서비스 등 제공으로 P사가 원활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지 시장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였다.

- P사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사의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에도 해외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등 글로벌 모범 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한국은 폴란드와 비자 면제 협정('93.12.24 발효)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폴란드에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한-폴 비자 면제 협정은 현지 취업과 같은 영리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0일 무비자 체류의 조건은 여행, 친지방문 등 비영리 활동을 위한 방문으로, 이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조치가 있을 수 있다.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의 영리 목적이거나 학업 목적으로 폴란드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적절한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temporary resident card)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폴란드 비자

- 대한민국 국민의 폴란드 체류와 관련된 폴란드 비자는 C, D 타입과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다.

- C 타입 (셴겐비자)

- 폴란드 또는 기타 셴겐 국가에서 180일 이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자를 위한 비자이다. 이는 신청인이 셴겐 지역을 최종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셴겐 지역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면 안 됨을 의미한다.

- D 타입 (폴란드 국내체류 비자)

- 폴란드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근로(인턴십 포함) 또는 학업을 위해 폴란드로 출국하는 경우, D 타입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 목적의 경우 비자 신청시 해당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노동허가서(Work Permit) 원본을 대사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비자 발급으로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방문 하기 전, 해당 기업에서 우편으로 노동허가증을 비자 신청자가 수령한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한국과 폴란드간에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공식 체결되었다(공식명칭: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18.1.24 체결, '18.6.1 발효). 동 협정으로 18~30세의 한국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1년간 폴란드에 체류하면서 관광, 문화체험, 어학연수 등과 함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 폴란드 노동허가서

- 노동허가서는 고용주의 신청으로 발급절차가 진행되며, 고용주의 소재지 관할 주정부 외국인 사무소에서 발급된다. 노동허가서의 종류는 A~E 타입이 있다.

- A 타입: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폴란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경우

- B 타입: 폴란드 현지 법인 이사회 임원(법원등기에 정식 등록)에게 발급

- C 타입: 폴란드에 30일 이상 근무할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에서 폴란드 현지 법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으로 주재원이 파견되는 경우

- D 타입: 폴란드 현지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폴란드에서 일정기간 동안 폴란드 현지 타업체에 단기 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E 타입: 폴란드 현지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폴란드에서 최소 30일 이상, 최대 6개월간 현지 타업체에 단기 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각 타입별로 요구되는 주요 신청 서류는 다르다. 지역별 관할 외국인 사무소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폴란드 현지 공증번역사에 의해서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노동허가서 발급 기간은 지역에 따르며 평균 약 4~6개월 소요된다.

3) 폴란드 거주증

- 임시 거주증 (Zezwolenie na pobyt czasowy i prac?) - 근로 및 임시거주가 가능한 거주증
 - 폴란드 내에서 1년 이상 근로 및 체류할 경우, 90일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하여 폴란드 현지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 거주증은 일반적으로 최고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동 거주증 발급은 외국인 신청자가 폭증하여 지역에 따라 발급에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거주증 발급과정에 있는 경우 EU회원국 내라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채용법 개정법 발효로 임시거주증 등록 시 서류증 주소지 증명서와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 EU 장기 거주증 (Zezwolenie na pobyt rezydenta długoterminowego UE)
 - 폴란드 현지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거주한 경우 영주권 성격의 EU 장기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동 거주증은 5년마다 카드만 갱신하면 된다. 2018년 2월 폴란드 외국인법 개정으로 반드시 폴란드어 능력시험을 통과하여 최소 B1등급(중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동 거주증 취득이 가능하다.
- 영주권 (Zezwolenie na pobyt stały)
 -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출구(NOTHING TO DECLARE)를 통해 나오며, 바로 공항 대합실과 연결된다. 녹색 출구를 통해 나올 때 세관원이 짐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입국자의 수하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원이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 반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1만 유로 이상 현금 보유)이 있다면, 붉은색 출구(ITEMS TO DECLARE)로 가게 돼 있고,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2007년 6월 15일부터 외화와 현지화를 합해서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등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고 발견되면 그 현금은 압수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약, 도덕적 또는 환경보호 사유로 금지된 물품, 사람과 동식물에 유해한 물품,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 EU 외 국가에서 폴란드로 입국한 경우 면세 한도 (향수 포함 기타품목)
 - 기차, 차량, 도보 등으로 입국 시 최대 300유로 상당까지의 비 상업적 물품에 대해 면세
 - 항공 및 해상 여행으로 입국 시 최대 430유로 상당까지의 비 상업적 물품에 대해 면세
 - 상기 면세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품목 : 개인용 의약품, 개인용 일상용품, 차량 등에 기 주입한 연료, 면세 수입기준에 부합한 담배 및 주류

- 주류 소지 한도 (만 17세 이상)
 - 알코올 도수 22% 이상 주류 1리터
 - 알코올 도수 22% 이하 주류 2리터
 - 포도주: 4리터

- 맥주 : 16리터

o 담배 소지 한도 (만 17세 이상): 항공 또는 해상 교통수단으로 오는 경우

- 궐련(cigarette): 200개비

- 소형 엽궐련(cigarillo, 개당 3g 미만): 100개비

- 엽궐련(cigar): 50개비

- 기타 담배류: 250g

- 여러 담배류를 함께 가져올 때는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백분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예, 궐련담배 100개비, 엽궐련 25개비)

o 담배 소지 한도 (만 17세 이상): 항공 또는 해상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오는 경우

- 궐련(cigarette): 40개비

- 소형 엽궐련(cigarillo, 개당 3g 미만): 20개비

- 엽궐련(cigar): 10개비

- 기타 담배류: 50g

o 외국환 신고

- 1만 유로 또는 1만 유로 상당의 외국환 반입의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

o 의약품

- 여행자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허용

- 보건부 장관의 동의가 있을시 제한을 철회할 수 있음

o 식품

- 동·식물성 식품 신고

- 본인 사용용 식품 중: 유아용 분유 2kg 이하, 어린이를 위한 음식 등

o 반입불허품목

- 미풍양속, 환경파괴 유해 물품

- 공공질서 혼란물품 (예: 위조 통화 및 상품)

- 동·식물

- 마약류 및 총기류

o 반입제한품목

-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보호대상 동·식물 및 파생 종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고양이, 개 및 흰 족제비는 EU 영토 첫 진입 시 건강 검진 의무, 마이크로 칩 혹은 ID 문신 필수,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검진 증명 서류 제출

-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여권 필요

- 무기와 탄약 등은 사냥과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선박 및 항공기의 요소인 플레어 무기에 한하여 폴란드 영사관에서 발급한 인 증서가 있을 때만 반입 가능. EU 시민은 유럽 총기 패스를 소지 필요

- 특정 예술품 및 골동품과 같은 문화재는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음

- EU 이외 지역에서의 식물 수입은 식물 위생 증명서 필요

o 기타 유의사항

- 입국세관: 적색 'TOWARY DO CELNIA'

- 무신고 통과: 녹색 'NIC DO CELNIA'

- 위 언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도금액과 수량 기준 준수

- 무역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개인적 수화물 통관 제재
- 폴란드 입출국 시 휴대 반입하는 악기에 대한 세관신고필요
- 신고규정 위반 적발 시 관련 형사법에 의거 처벌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48-22-559-2900~04
주소	ul. Szwoleerów 6, 00-464 Warszaw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l-ko/index.do
비고	대표전화(근무시간중) : +48-22-559-2900~04업무시간 외 긴급 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 +48-887-46-0600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폴란드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48-22-525-0930
주소	Ul. Leona Kruckowskiego 8(Nordic Park, Parter), 00-380, Warszawa
홈페이지	http://pl.korean-culture.org/ko

◦ 폴란드 한인회

전화번호	+48-600-296-670
주소	N/A
홈페이지	http://poland.korean.net/xen/
비고	한인회 조직 / 임원 / 연락처 등 : http://poland.korean.net/xen/info_map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대통령실 (Prezydent)

전화번호	+48-22-695-2900
주소	ul. Wiejska 10, 00-902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prezydent.pl/

◦ 총리실 (Premier)

전화번호	+48-22-694-6000
주소	Al. Ujazdowskie 1/3, 00-583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premier.gov.pl/

◦ 하원 (Sejm)

전화번호	+48-22-694-2500
주소	ul. Wiejska 4/6/8 00-902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sejm.gov.pl/

◦ 중앙은행 (Narodowy Bank Polski)

전화번호	+48-22-185-1000
주소	ul. Switokrzyska 11/21, 00-919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nbp.pl/

◦ 투자무역청 (Polska Agencja Inwestycji i Handlu)

전화번호	+48-22-334-9800
주소	ul. Krucza 50, 00-025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paih.gov.pl/

◦ 통계청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전화번호	+48-22-608-3000
주소	Aleja Niepodległości 208, 00-925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stat.gov.pl/

◦ 조달청 (Urząd Zamówień Publicznych)

전화번호	+48-22-458-7701
주소	ul. Postępu 17a, 02-676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uzp.gov.pl/

◦ 상공회의소 (Krajowa Izba Gospodarcza)

전화번호	+48-22-630-9600
주소	ul. Trbacka 4, 00-074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kig.pl/

◦ 화학공업회의소 (Polska Izba Przemysłu Chemicznego)

전화번호	+48-22-828-7506
주소	ul. Jana i Jdrzeja niadeckich 17, 00-654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pipc.org.pl/

◦ 농업식품경제협회 (Instytut Ekonomiki Rolnictwa i Gospodarki Żywnościowej)

전화번호	+48-22-505-4518
주소	ul. Swietokrzyska 20, 00-002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ierigz.waw.pl/

◦ 제약의료기기산업회의소 (Polska Izba Przemysłu Farmaceutycznego i WYROBÓW MEDYCZNYCH)

전화번호	+48-22-654-5352
주소	ul. Łucka 2/4/6, 00-845 Warszawa
홈페이지	https://polfarmed.com.pl/

◦ 철강협회 (HIPH)

전화번호	+48-32-788-7777
주소	ul. Lompy 14, 40-040 Katowice
홈페이지	http://www.hiph.org/

◦ 바르샤바 증권거래소 (GPW)

전화번호	+48-22-628-3232
주소	ul. Ksica 4, 00-498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gpw.pl/

◦ Gazeta Wyborcza

전화번호	+48-22-555-5455
주소	ul. Czerska 8/10, 00-732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gazeta.pl/
비고	현지 언론

◦ Rzeczpospolita

전화번호	+48-22-628-3401~9
주소	ul. Prosta 51, 00-838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rzeczpospolita.pl/
비고	현지 언론

◦ tvn24

전화번호	+48-22-324-2424
주소	ul. Wiertnicza 166, 02-952 Warszawa
홈페이지	http://www.tvn24.pl/
비고	현지 언론

◦ Teleadreson

전화번호	+48-58-524-8200
주소	Trubadurow 11, 80-205 Gdansk
홈페이지	http://www.teleadreson.com.pl/
비고	현지 기업검색 사이트

◦ 경제개발기술부 (Ministerstwo Rozwoju i Technologii)

전화번호	+48-22-250-0123
주소	Pl. Trzech Krzyzy 3/5, 00-507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gov.pl/web/rozwoj-technologia

◦ Panoramafirm

전화번호	+48-22-289-2000
------	-----------------

주소	ul. Postpu 14A, 02-676 Warszawa
홈페이지	https://panoramafirm.pl/
비고	현지 기업검색 사이트

◦ 인터넷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https://ekrs.ms.gov.pl/web/wyszukiwarka-krs/strona-glowna/
비고	폴란드 현지 법인, 지점 등록 상황 검색 가능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4.87 PLN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맥도날드 빅맥 세트	1세트	4.500
2	식품	맥주	500ml	0.850
3	식품	수입맥주	500ml	1.200
4	식품	우유	1l	1.150
5	식품	달걀	10알	3.700
6	음료	생수	500ml	0.460
7	음료	콜라	330ml	1.060
8	음료	커피	1잔	3.300
9	교통	대중교통요금	1회권	1.020
10	교통	대중교통요금	1달 정기권	23.0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820
12	서비스	이발	남성 1회	17.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600
14	서비스	모바일통신비	1분	0.080
15	여가	영화입장권	1인	4.540
16	여가	담배	1갑	4.200
17	여가	피트니스센터	1달	30.000
18	거주	아파트 월세 (시내 방1 기준)	1달	900.000
19	학비	국제학교 수업료 (12학년 기준)	1년	255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6.750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 폴란드 화폐 단위는 즈워티(Zloty, PLN 또는 지로 표시)이다. 1즈워티는 100그로쉬(Groszy)이다. 지폐는 10, 20, 50, 100, 200, 500즈워티가 있고, 동전은 1, 2, 5즈워티와 1, 2, 5, 10, 20, 50그로쉬가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1달러는 약 4.4즈워티이며, 1즈워티는 한국 원화로는 약 300원이다.

◦ 폴란드는 2004년 5월 1일부로 EU에 가입했으나 아직 유로화는 도입하지 않고 자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무부에서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폴란드 내부적으로는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높으며, 정권을 잡은 법과정의당(PiS) 또한 유로화 도입에 회의적이다.

환전방법

◦ 폴란드에서 환전할 수 있는 곳은 환전소(Kantor), 은행, ATM 등이 있다. 환전을 보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Kantor(칸토르,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은행이나 ATM 기계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환율이 유리하고, 시내 곳곳에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시내 중심가가 더 높은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로 환율이 달라지고 환전소마다 환율 차가 꽤 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Kantor 입구 환율 전광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 후 환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폴란드 중앙은행인 NBP(<http://www.nbp.pl/Kursy/RatesA.html>)에서 환율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주로 Kantor는 공항, 터미널, 메트로역, 호텔 부근, 쇼핑몰 등지에 위치하고 있다.

◦ Kantor는 1990년 초 정부의 독점적인 외환 관리가 풀리면서 등장했는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한다. 특히 바르샤바 시내에는 여러 곳의 Kantor가 있기 때문에 찾는데 어렵지 않다. Kantor에서 외환의 매입, 매도가 모두 가능하나 동전은 환전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액 환전 시 우대 환율을 적용해 주기도 한다. Kantor는 환전 시의 매입, 매도율 차이로 이윤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다. 대개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Kantor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3~4 곳의 Kantor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환율의 Kantor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또한, 폴란드 내에서 Bankmat(ATMs)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폴란드 즈워티 환전은 일정 화폐단위로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율이 유리한 편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환전 후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폴란드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uronet ATM기는 현금 인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정 필요한 경우 은행 ATM기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환율이 매우 좋지 않아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은행은 계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입출금 시 환전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에서는 환전 서비스를 중지했다. 공항 내 환전소는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또한, 여행 목적인 경우 호텔과 관광지에서 유로화 결제를 할 수도 있으니, 유로화로 환전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종합하면, 폴란드에서 환전 시 환율이 유리한 환전 장소의 순서는 Kantor, 은행, 공항 내 환전소 순이다. 큰 금액(예: 3,000 즈워티 상당 금액 이상) 환전할 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우대환율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이용

대부분의 상점, 식당,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 작은 키오스크, 기념품점 등에서도 카드 결제가 보편적이다. 다만, 간혹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의 현지화를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Amex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Visa, Master Card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시에는 한국과 같이 서명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주로 Pin 넘버(4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카드회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 좋다. 100즈워티 이하는 Pin 번호 입력 없이 Paypass 결제도 가능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 바르샤바의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트램, 지하철 등이 있는데 한 가지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환승이 가능한 시간(기간)제 승차권으로 바르샤바 시내 1존 기준으로 20분권 3.4 즈워티, 75분권 4.4 즈워티, 90분권 7 즈워티이다. 시간제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사용 개시 이후 구매한 각 티켓에 해당하는 20분, 75분, 90분 이내에 환승 제한이 없다. 또한, 체류 기간에 따라서 승차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일권 15 즈워티(1존), 26 즈워티(1+2존), 3일권 36 즈워티(1존), 57 즈워티(1+2존) 등이 있다. 30일권 110 즈워티(1존), 180 즈워티(1+2존), 90일권은 280즈워티(1존), 460 즈워티(1+2존)이다. 이외 주말권 24 즈워티, 그룹주말권 40 즈워티(5인용), 평일 그룹권 22 즈워티(75분 1+2존 이용권) 등도 있다.

○ 대중교통 안내도 및 이용방법 등은 바르샤바 대중교통 관리국에서 제공하는 시내 대중교통 노선 및 시간 안내 홈페이지(<https://www.wtp.waw.pl/rozkłady-jazd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위한 앱 mobileMPK을 깔면 실시간 현황을 체크하며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구글맵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버스

바르샤바의 버스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운행되는데 주간의 경우 배차시간이 짧고, 시내 곳곳을 운행하지만, 야간버스의 경우 배차시간이 길고(30분 혹은 1시간 간격), 주요 지역만을 운행한다. 버스 내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주로 카드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표를 구매하여 탑승해야 한다. 탑승 후에는 반드시 승차권 확인 기계를 통해 개찰해야 하며, 버스 안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개찰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택시

○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택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콜택시 및 택시 모바일 앱을 주로 이용하며, 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시내에서는 30~50즈워티(약 9,000~15,000원) 정도면 주요 지역을 갈 수 있고, 밤 10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증요금이 붙는다. 팁에 관한 관습이 일반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호텔, 식당 등에서는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약 10분 후에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콜택시 전화번호 : 64444444, 6464646, 3334444, 8111111 등

○ 택시 모바일앱 : itaxi, free-now, Bolt 등

지하철 및 트램

○ 바르샤바의 지하철은 2개 노선으로 Centrum을 비롯한 바르샤바 주요 지역을 경유한다. 승차권은 곳곳의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있는 Kiosk(신문 등을 파는 소형 매점)와 지하철역 자판기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버스나 트램내에 티켓 발매기를 설치하여, 미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승객은 버스 내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간혹 없는 경우가 있어 미리 사 두는 것이 좋다.

○ 바르샤바는 지형이 평탄하여 트램 노선 또한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버스와 같다.

다. 통신

핸드폰

◦ 출국 전 한국에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유심카드를 구입해 요금 충전 후 사용할 수도 있다. 폴란드 내 휴대폰 서비스 통신업체로는 Play, Orange, T-Mobile, Plus가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주역 휴대폰 통신업 체이나 인터넷통신, 케이블TV 등 통신분야 전반에 걸쳐 활동한다.

◦ 폴란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충전방식과 약정방식이 있다. 충전방식은 선불 SIM 카드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만큼의 요금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선불 SIM 카드는 통신사 대리점, 편의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반드시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사용 개 시를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개시를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

◦ 약정방식은 기본적으로 1~2년 정도를 약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폴란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위약 금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정방식은 타 통신 서비스와 연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거주 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보다 합리적인 이용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트북(laptop)이나 태블릿과 인터넷서비스를 결합상품으로 만든 서비 스도 있다. 이것은 일반 스마트폰 약정 계약을 확장시킨 개념이며, 보통 1~2년 약정으로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약정을 통해서 빌 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36개월 약정 기준 매월 70~100즈워티(약 21,000원~30,000원)를 내면 최신기종의 노트북과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 핸드폰 약정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Karta Kredytowa(폴란드에서 만든 신용카드), Zasadniczenie o zatrudnieniu(고용 증명서), Legitymacja Studencka(폴란드 학 생증) 이 세 가지 서류 중 1개 구비
 - Urzadowe potwierdzenie adresu w Polsce(거주 증명서)
 - Paszport(여권)

인터넷(와이파이)

폴란드 내 주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다 속도는 빠르지 않으나 대부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 호텔 대부분은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호텔 내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 나 일부 호텔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 와지엔키 공원(Lazienki Park)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Agrykoli 1, 00-460 Warszawa

운영시간	PALACE ON THE ISLE 공원내 박물관 운영시간 화~목: 10:00~16:00 금: 10:00~17:00 토: 10:00~16:00 OLD ORANGERY, ROYAL THEATRE 화~목: 10:00~16:00 금~토: 10:00~17:00 일: 10:00~16:00 MYSLEWICKI PALACE 화~목: 10:00~16:00 금~토: 10:00~17:00 일: 10:00~16:00 계절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필요
휴무일	공원은 휴무일 없으나, 공원 내 극장 및 성은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18세기 후반 폴란드의 마지막 왕 Poniatowski(포니아토프스키)에 의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 공원의 이름 와지엔키는 목욕탕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 지역은 귀족들의 수렵 장소였는데 수렵을 마친 후 이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비고	https://www.lazienki-krolewskie.pl/en

◦ 성 십자가 성당(Holy Cross Church)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Krakowskie Przedmiescie 3, 00-047 Warszawa
운영시간	일반적으로 미사시간에 맞춰 개장함(일요일 기준 미사시간 06:00, 07:30, 09:00, 10:30, 11:45, 13:00, 16:00, 19: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882년 쇼팽의 심장이 프랑스 파리로부터 옮겨져 성당 내부 기둥에 안치됐다. 미사 시간을 제외하고 관람객들의 방문이 가능하고, 플래시를 켜지 않은 상태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성당은 15세기 작은 목재 성당으로 건축됐고, 1650년 스웨덴군의 침입으로 파괴됐다가 1696년에 재건축됐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다시 파괴된 것이 전후에 복구됐다. 내부의 오르간은 1925년 잘츠부르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바르샤바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이다.
비고	http://swkrzycz.pl/

◦ 바르샤바 구시가지(Warsaw Old Town)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Stare Miasto, 05-077 Warsaw

명소소개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1980년에 지정됐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여름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바르샤바 시민군이 무장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쌍방이 막대한 희생자를 낸 바 있는데, 독일군은 시민군을 철저히 괴멸시키는 한편, 소련군의 바르샤바 진주에 앞서 퇴각하면서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잘 축조된 구시가지(Old Town) 전체를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후 폴란드는 공산치하에 있던 1951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각계각층의 고층 자료를 활용하고, 복구에 따른 막대한 인력 수요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근로 참여 등을 이용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5년 만에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켰다.
------	---

○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Warsaw Rising Museum)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Grzybowska 79, 00-844 Warszawa
운영시간	월, 수~금: 09:00~18:00 토~일: 10:00~18:00
휴무일	화요일
명소소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독일군에 대항하여 바르샤바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을 기념한 역사 박물관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당시 생명을 건 순국열사들의 치열한 항거 흔적을 고스라니 현장감 있게 재현한 공간들이 인상깊다.
비고	https://www.1944.pl/

○ 모르스키에 오키(Morskie Oko)

도시명	자코파네
주소	Stare Schronisko nad Morskim Okiem, 34-500 Zakopane
운영시간	9:00~21:00 계절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필요
명소소개	바다의 눈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호수는 폴란드 남부의 타트리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바키아 국경에 맞닿아 있다. 동유럽의 스위스 혹은 숨은 보석이라고 평가되는 이곳은 산지가 많지 않은 폴란드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명승지 가운데 하나이며 휴가철에는 50,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폴란드인들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안식처라고도 불린다. 겨울에는 호수의 물이 얼어붙어 호수 위를 걸어 다니면서 타트리산의 절경을 볼 수도 있다.
비고	https://schroniskomorskieoko.pl/pl

○ 쇼팽 생가(The Birthplace of Fryderyk Chopin)

도시명	젤라조바 볼라
주소	Zelazowa Wola 15, 96-503 Zelazowa Wola
운영시간	매일 (월요일 제외) 09:00~16:45 계절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필요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20세기에 이르러 폴란드에서는 쇼팽 협회가 발족되고 이 집의 관리는 쇼팽 협회가 맡아서 하게 됐다. 이때 원래 작은 지역이었던 것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넓은 부지를 추가해 공원으로 조성했고, 세계 각국의 쇼팽 음악 애호가들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물들을 기증해, 현재 이 공원에는 약 1만 5,000종의 세계 각국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한편 1830년 폴란드를 떠난 쇼팽은 크라쿠프, 프라하, 비엔나, 뮌헨 등을 거쳐서 파리에 정착한 뒤 작가 조르주 상드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의 후원 아래 쇼팽은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누나가 파리를 방문해 그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바르샤바 구시가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에 안치했다.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매주 일요일 12:00에는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생가 내부에 있는 피아노를 사용해 연주회를 연다.
비고	https://muzeum.nifc.pl/en/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

도시명	크라쿠프
주소	Stanislawy Leszczynskiej 11, 32-600 Oswiecim
운영시간	12월: 7:30~14:00 1월, 11월: 7:30~15:00 2월: 7:30~16:00 3월, 10월: 7:30~17:00 4월, 5월, 9월: 7:30~18:00 6월, 7월, 8월: 7:30~19:00 - 위의 시간은 박물관 안내 입장 가능시간이며, 박물관 최종 마감시간은 입장시간+1시간30분임. (예: 2월은 17시 30분, 6월은 20:30) - 박물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필요
휴무일	1월 1일, 12월 25일, 부활절
명소소개	1979년에 지정. 독일의 나치 제3 제국 시절에 조성된 최대 규모의 집단 수용소 겸 처형장으로, 194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약 400만 명이 기아, 고문, 처형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럽 각지로부터 압송된 유대인이었다. 희생자 숫자는 통상 40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구 소련이 과장되게 발표했다는 설과 함께, 지속적인 사실관계 추적에 따라 오늘날에는 150만 명이 희생됐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바르샤바에서 360Km, 크라쿠프 시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이 지역은 폴란드 지명으로 오시비엥침(Oswiecim)이라 불려오다 독일에 의해 편입되면서 독일명으로 아우슈비츠로 변경됐다. 당초에는 폴란드 등 점령지의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압송돼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나치에 의해 분류된 이른바 저질 인종이라는 집시 등을 강제 수용해 노동력 착취는 물론 결국에는 처형시키는 대규모 처형장으로 바뀌었다.
비고	국제 행사가 개최되면 운영을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auschwitz.org/en/)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각 관광명소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벨베데레(Belvedere)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558-6701
주소	Agrykola 1, 00-460 Warszawa

가격	16~30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요일~일요일: 12:00 ~ 22:00
소개	유명한 와지엔키 공원 안에 있어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음. 폴란드 전통식, 양식 등
비고	https://www.belvedere.com.pl/en/home/

◦ 포드발레 25(Podwale 25)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635-6314
주소	ul. Podwale 25, 00-261 Warszawa
가격	15~29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12:00~24:00 일요일: 12:00~24:00
소개	구 시가지(올드 타운)에 위치. 폴란드 전통 요리, 양식 등
비고	http://podwale25.pl/

◦ 로자나(Rozana)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848-1225
주소	UL. CHOCIMSKA 7, 00-791 WARSZAWA
가격	17~3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4:00
소개	폴란드 전통 음식 전문
비고	https://www.restauracjarozana.com.pl/

◦ 자피에첵(Zapiecek)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692-7204
주소	Krakowskie Przedmiescie 55, 00-071 Warszawa
가격	13~25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3:00
소개	폴란드 대표 음식점으로 체인점이다. 상기 주소는 바르샤바 올드타운 인근에 위치, 폴란드 전통식을 맛볼 수 있음.

비고	http://www.zapiecek.eu/
----	---

○ 스타리돔(Stary Dom)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646-4208
주소	Pulawska 104/106, 02-620 Warszawa
가격	15~3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3:30
소개	고급 폴란드 전통음식점
비고	https://www.restauracjastarydom.pl/

○ 컨셉13(Concept 13)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310-7373
주소	Bracka 9, 00-501 Warszawa
가격	15~30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12:00~22:00, 일요일 12:00~18:00
소개	바르샤바 시내 백화점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비고	https://hotel.com.pl/pl/restauracja-concept-13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한국식당

○ 코리아나(Koreana)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415-6681
주소	Ul. Filtrowa 62, 02-057 Warszawa
가격	12~2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2:00
소개	시내 중심가에서 가깝음. 현지 신문에 소개된 바 있어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있음.

○ 서울(Seoul)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739-505-297
주소	Aleja Komisji Edukacji Narodowej 36 a lok. 1, Galeria Ursyn&oscar;w, 02-797 Warszawa
가격	12~22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1:30~21:30 토요일, 일요일: 12:00~21:30
소개	우르시누프에 위치. 불고기, 탕수육, 비빔국수 등
비고	https://www.restauracjaseoul.pl/en

◦ 라스(Sushi Akiyama)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651-7010
주소	Stanislawa Kostki Potockiego 24a, 02-958 Warszawa
가격	12~2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2:00
소개	바르샤바 남쪽 빌라노프 궁전 근처에 위치. 삼겹살, 차돌박이 등

◦ 아리랑(Arirang)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881-7851
주소	Nowogrodzka 38, 00-691 Warszawa
가격	12~24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바르샤바 시내 노보텔 근처에 위치

◦ 소라(Sora)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214-5888
주소	Wronia 45/lok. U3 00, 00-868 Warszawa
가격	12~25달러 수준
영업시간	11:30~22:00

소개	힐튼호텔 근처에 위치, 한식 및 일식 메뉴
비고	http://www.restauracjasora.pl/

◦ 오 스시 앤 그릴(Ohh Sushi and Grill)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22-642-1618
주소	Wiertnicza 102, 02-952 Warszawa
가격	15~3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2:00
소개	빌라노프 지역 인근, 일식과 한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비고	http://ohhsushigrill.pl/

◦ 궁(GUNG)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881-785-884
주소	Al. Rzeczypospolitej 20, 02-972 Warszawa
가격	12~25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목: 11:30~22:00 금~토: 11:30~23:00 일: 11:30~21:00
소개	빌라누프 지역, 한식(그릴) 및 일식 메뉴
비고	https://ikornijchuk.wixsite.com/gung

◦ 강남(Gangnam)

도시명	바르샤바
전화번호	+48-881-661-323
주소	Kolejowa 47B/U6, 01-210 Warszawa
가격	10~25달러 수준
영업시간	월~금: 12:00~22:00 토: 13:00~23:00 일: 13:00~22:00
소개	철도박물관 근처에 위치, 한식 메뉴
비고	https://restauracja-gangnam.business.site/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노보텔 바르샤바 첸트룸(Novotel Warszawa Centrum)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ul Marszalkowska 94/98, 00-510 WARSAW
전화번호	+48-22-596-0000
홈페이지	https://novotel-warszawa-centrum.hotel-ds.com/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00~12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문화과학궁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인터콘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Warszawa)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ul. Emilii Plater 49, Warszawa
전화번호	+48-22-328-8888
홈페이지	http://warszawa.intercontinental.com/en/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40~12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다양한 크기의 컨퍼런스 룸, 식당, 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등 모든 편의시설 구비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매리어트 호텔(Warsaw Marriott Hotel)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Al. Jerozolimskie 65/79, Warszawa
전화번호	+48-22-630-6306
홈페이지	https://www.warsawmarriott.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40~20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최상층에는 바가 설치돼 있어서 바르샤바 전경을 즐기면서 각종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

○ 리젠트 호텔(Regent Warsaw Hotel)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ul. Belwederska 23, 00-761 Warszawa
전화번호	+48-22-558-1234
홈페이지	https://www.regent-warsaw.com/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92~12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스파(spa), 레스토랑,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르네상스 바르샤바 에어포트 호텔(Renaissance Warsaw Airport Hotel)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Zwirki i Wigury 1H, 00-906 Warszawa
전화번호	+48-22-164-7000
홈페이지	https://www.renaissancewarszawa.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00~140유로 정도이다.
소개	쇼팽공항 인근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셰라톤 그랜드 호텔(Sheraton Grand Warsaw Hotel)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Boleslaw Prusa 2, 00-493 Warszawa
전화번호	+48-22-450-6100
홈페이지	https://www.sheratonwarsaw.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40~20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래디슨 컬렉션 호텔(Radisson Colletion Hotel Warsaw)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Grzybowska 24, 00-132 Warszawa
전화번호	+48-22-321-8888
홈페이지	https://www.radissonhotels.com/en-us/hotels/radisson-collection-warsaw-centrum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20~14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소피텔 빅토리아 호텔(Sofitel Warsaw Victoria)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Krolewska 11, 00-065 Warszawa
전화번호	+48-22-657-8011
홈페이지	https://sofitel-victoria-hotel-warsaw.hotel-ds.com/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35~150유로 정도이다.
소개	바르샤바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노보텔 브로츠와프 첸트룸(Novotel Wroclaw Centrum)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Powstancow Slaskich 7, 53-332 WROCLAW
전화번호	+48-71-722-4900
홈페이지	http://novotel-centrum.wroclaw-hotels.com/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86100유로 정도이다.
소개	브로츠와프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4성급 호텔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호텔 모노폴 브로츠와프(Hotel Monopol Wroclaw)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ul. Heleny Modrzejewskiej 2, 50-071 Wrocław
전화번호	+48-71-772-3777

홈페이지	https://monopolwroclaw.hotel.com.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25~165유로 정도이다.
소개	브로츠와프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시내에 위치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호텔 모노폴 카토비체(Hotel Monopol Katowice)

도시명	카토비체
주소	Dworcowa 5, Katowice
전화번호	+48-32-782-8282
홈페이지	https://monopolkatowice.hotel.com.pl/hotel-monopol-katowice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22~155유로 정도이다.
소개	카토비체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특급 호텔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컨퍼런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 셰라톤 포즈난 호텔(Sheraton Poznan Hotel)

도시명	포즈난
주소	ul. Bukowska 3/9, 60-809 Poznan
전화번호	+48-61-655-2000
홈페이지	https://www.sheratonpoznan.pl/
숙박료	일반 싱글룸 기준 120~160유로 정도이다.
소개	포즈난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시내에 위치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비고	시기에 따라 가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 참고 요망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게스트하우스

○ 바르샤바 리버뷰(Warsaw River View)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Wybrzeze Kosciuszkowskie 43, 00-347 Warszawa
전화번호	+48-22-270-0900
홈페이지	http://warsawriverview.pl/

숙박료	60~70 유로
소개	비스와강 인근 포비슬레 지역에 위치.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이용이 가능하다.
비고	가격 상이할 수 있음. 홈페이지 참고 요망.

○ 빌라 플라자(Villa Plaza)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ul. Pustola 19, Warszawa
전화번호	+48-609-773-888
홈페이지	http://www.villaplaza.waw.pl/
숙박료	150PLN
소개	시내 중심가에서 서쪽인 볼라 지역에 위치
비고	가격 상이할 수 있음. 홈페이지 참고 요망.

○ 카미에니차 포트 아니오와미(KAMIENICA POD ANIOLAMI)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ul. Kazimierza Wielkiego 31-33, 50-077 Wrocław
전화번호	+48-71-394-7442
홈페이지	http://kamienicapodaniolami.pl/
숙박료	35~60 유로
소개	브로츠와프 중심가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비고	가격 상이할 수 있음. 전화로 확인 요망

○ 트래블 하우스(Travel House)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Bulwar Ikara 10, 54-130 Wrocław
전화번호	+48-579-514-917
홈페이지	https://travelhouse.info/
숙박료	80~100 유로(인원수에 따라)
소개	브로츠와프 북서쪽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버스나 전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소매치기와 야간 기차에서의 강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경을 넘는 야간 기차에는 강력한 마취제를 살포한 뒤 강탈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 Skin Head 등 불량배와 마피아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알려진 우범 지역은 기차역, 야간의 Old Town 주변, 프라가(Praga) 지역 등이다. 프라가 지역은 바르샤바 내에서도 다소 낙후된 지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어두운 골목과 불량자들을 마주할 위험이 있다.

○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극성 축구팬이 많은 국가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크라쿠프에 소재한 비스와 크라쿠프(Wisla Krakow), 크라코비아(Cracovia) 두 축구팀의 дер비 경기가 있는 날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므로 경기장 주변이나 변화가로 외출을 삼가야 한다. 양 팀의 축구팬들 간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축구팬 무리들이 길거리에 밀집해 있을 경우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

○ 이 외 우범지역은 폴란드 북동쪽에 위치한 비아위스톡(Bialystok)이 있다. 낙후 지역인 만큼 아직 인종차별이 다소 남아있으니 방문을 지양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폴란드와 같은 경우 대도시(크라쿠프, 바르샤바) 외 지방 소도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이 있기는 하나,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 한국인 여행객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소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의 신고가 적은 성향이 있어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급적 여행객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피하고, 강도를 만났을 경우에는 순순히 원하는 것을 건네주는 것이 좋으며, 이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바람잡이식 범죄가 많음을 감안, 낯선 사람의 호의는 경계하는 것이 좋으며 신용카드, 현금 등은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호텔에서 귀중품과 현금,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때 호텔 내 Safety Box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량 여행 시에는 핸드백이나 귀중품이 차창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미하게 후미에서 받히는 자동차 사고 시, 의심이 날 경우에는 차에서 내리지 말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다. 또한, 주차 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나 경비가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차 여행 시 휴대화물과 손가방 등은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으며 역내 혼잡한 틈을 이용한 소매치기에 주의해야 한다. 기차 내에서 여객 차량 내에 승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차장에게 요청해 승객이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부 있어 되도록이면 밝은 곳에 다니고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통사고

- 폴란드인들은 비교적 운전 규정을 준수하는 편이나, 최근 시내 운행 차량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 현지인들의 운전습관이 다소 거친 점을 명심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나 과속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만큼 좌회전 및 우회전 시 사각지대를 잘 살피고 천천히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반드시 상호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귀책사유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경찰을 바로 부르는 것이 좋다.

○ 여권/지갑 분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 장소, 대중 교통수단 등지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여권은 지갑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현지인에게 방심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여권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 응급 전화번호

- 긴급전화 112
- 경찰서 997
- 소방서 998
- 구급차 999
- 교통사고 신고전화 +48-22-603-7755
-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비상연락처 +48-887-460-600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임차하는 주택은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 형태이다. 월 주택 임차료는 주택의 위치, 크기, 시설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바르샤바 중심의 90~140㎡ 아파트의 경우 1개월 임차 가격은 2,000~3,500유로 수준이다. 현재 폴란드 전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통상 임차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산출하며, 한국과 같이 공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다. 아파트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침대, 냉장고, 소파, 책장,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등을 포함해 주택을 임차하는 'furnished'가 일반화된 추세이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인 쌍방이 사전에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모델, 가격, 용량 등)을 협의해서 구입해야 하므로 최종 입주 시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 임차 계약 기간은 보통 1~3년이며, 임차 기간 중 중도 해약 시에는 2~3개월 전에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1개월 임차료(또는 이의 50%)를 중개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금으로는 1~2개월 임차료를 선금으로 소유주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된다.

◦ 관리비는 아파트의 경우 보통 월 임차료에 포함되며, 단독 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세, 전기료, 인터넷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바르샤바의 고가 아파트는 투자 목적뿐 아니라 실수요가 높아 분양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가 아파트들이 주로 건축되는 곳은 도심 지역으로 많은 외국계 기업이 입주한 주변에 위치한다.

◦ 분양자들의 국적은 폴란드 이외에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등으로 다양하며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선호하는 외국계 회사 직원이 다수이다.

전화

◦ 외국인이 전화를 신청할 경우는 주택 임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와 신분증(여권)이 있으면 된다. 거주 지역의 통신회사 지점에 방문해 신청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보통 신청 당일 신청 서류 및 전화 연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준다. 전화 연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폴란드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동전화 사용을 원할 경우 이동전화 사업자의 지점을 방문해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면 구입한 선불금액만큼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선불카드 서비스는 Plus, T-mobile, Orange, Play 등이다. 유심카드는 SATURN 같은 전자제품 마트, 통신사 지점, 대형슈퍼 및 길거리 키오스크에서 구입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심 구입 후 휴대폰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1월부터는 해당 통신사에 가서 회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등록은 해당 통신사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며, 등록 시 여권이 필요하다.

전압/플러그

◦ 폴란드 콘센트는 Type E가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Type C 및 Type F와 혼용할 수 있다.

◦ 전압은 230V로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헤르츠는 한국과 달리 50Hz로 모터 작동 제품은 장

시간 이용 시 고장이 날 수 있다.

식수

◦ 폴란드는 토양에 석회질이 많고 수도관 파이프가 많이 부식되어 일반적으로 수도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를 구입해서 마신다. 가정에서 요리시 사용하는 물은 보통 정수 필터로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

◦ Cisowianka, Zywiec zdroj, Naleczowianka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탄산수(Woda Gazowana)와 생수(Woda Niegazowana)를 구분해서 팔고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폴란드 내 다수의 브랜드 딜러샵이 존재하여 방문 및 구매를 할 수 있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대부분은 매뉴얼(스틱) 기어이긴 하지만, 오토 기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모델별 가격은 현지 시장조사 기관 SAMAR의 홈페이지(www.samar.pl)를 참조하면 된다. 차량 보증기간은 통상 3년이며, 차량 보험료는 종합 보험인 경우 차종에 따라 연간 700~2,500달러 정도이다. 주요 보험사로는 Allianz, Warta, PZU, LINK4 등이 있다. 폴란드에는 현대자동차(판매법인), 기아자동차(판매법인)가 진출해 있어 한국 자동차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가격

- 폴란드 내 인기차량 가격
 - Toyota Corolla: 129,900 PLN~
 - Toyota Yaris: 90,400 PLN~
 - Skoda Octavia: 91,000 PLN~
 - Dacia Duster: 65,200 PLN~
 - Toyota RAV4: 135,900 PLN~
 - Skoda Fabia: 62,000 PLN~
 - Toyota C-HR: 122,900 PLN~
 - Hyundai Tucson: 112,900 PLN~
 - Hyundai i30: 79,700 PLN~

◦ 중고차 가격은 <https://www.otomoto.pl/>, <https://autogt.pl/>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 한국-폴란드 간 운전면허 상호 승인 조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 조약에 따르면 일국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방 체약 당사자의 영역 안에 정착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거주국의 국내 운전면허와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단, 운전면허의 번역은 요구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참고로, 면허증 발급용 사진은 왼쪽 귀를 보이게 찍어야 하므로 한국에서 평범하게 찍어온 증명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통상 폴란드에서 증명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 촬영 후 현상까지 15분이면 충분하다.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통용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주의할 점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큼 ‘폴란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해외 근무 기간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재발급 절차를 밟아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 외국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통역을 고용해 시험을 치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제네바 협정) 가입국으로 국제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

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PKO Bank Polski
- Bank Pekao SA
- mBank SA
- Milleninium
- BGZ BNP Paribas
- Citi Bank
- Santander
- BPH
- Alior

계좌 개설방법

- 계좌 개설은 간단하다. 여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소정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신청 당일 계좌가 개설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단위(유로, 달러 등)를 지정해 외화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계좌에 거액의 외화 예금을 할 경우 폴란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외환 소지 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은행은 PKO BP, Citi Bank, Pekao S.A., Milenium 등이 있다. 통장잔고의 수준 및 정기입금액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고객을 관리한다.
-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폴란드 은행에서도 신용카드를 만들 경우 더 다양한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수수료 할인 등), 외국인의 경우 거주증이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다. 신용카드는 자택으로 배송 요청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American School of Warsaw

도시명	바르샤바
커리큘럼	Early Year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학비	2022//2023 School Year 기준 - Application fee 150 USD 또는 600PLN (non-refundable) - Registration fee Pre-Kindergarten PLN 4000 deposit Kindergarten 1,000 USD 1-12학년 6,000 USD - Annual Tuition Pre-Kindergarten 5,900 USD + 30,200 PLN Kindergarten 7,250 USD + 39,500 PLN 1-2학년 9,090 USD + 53,580 PLN 3-5학년 9,455 USD + 55,730 PLN 6-8학년 10,875 USD + 57,630 PLN 9-10학년 11,095 USD + 61,040 PLN 11-12학년 11,095 USD + 62,730 PLN
홈페이지	https://www.aswarsaw.org/
비고	미국계

◦ International American School of Warsaw

도시명	바르샤바
커리큘럼	Early Year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학비	2022/2023 School Year 기준 - Enrollment fee 4,000 PLN (non-refundable non-deducatable) - Tuition fee Pre KG 36,000 PLN KG 38,000 PLN 1-2학년 43,000 PLN 3-4학년 49,000 PLN 5-6학년 50,000 PLN 7-9학년 54,000 PLN 10-12학년 61,000 PLN
홈페이지	http://www.ias.edu.pl/en/
비고	미국계

◦ The British School Warsaw

도시명	바르샤바
------------	------

커리큘럼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Pre-IB Programm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학비	2022/2023 School Year 기준 Deposit of 4,000 PLN is refundable upon leaving the school The tuition fee for the first term for new students is higher by 3,000 PLN Below are details of tuition fees and charges, including registration and enrolment fees. - Tuition fee Pre-Nursery 41,000 PLN Nursery 51,360 PLN Reception 61,280 PLN 1-2학년 83,645 PLN 3-6학년 91,220 PLN 7-9학년 94,115 PLN 10-11학년 97,750 PLN 12-13학년 99,415 PLN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our-schools/warsaw
비고	영국계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33 Liceum Ogólnokształcące Dwujęzyczne im. Mikołaja Kopernika w Warszawie

도시명	바르샤바
커리큘럼	바르샤바 명문 공립 고등학교
학비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www.kopernik.edu.pl/

◦ Gimnazjum I Liceum im. Stefana Batoryego w Warszawie

도시명	바르샤바
커리큘럼	바르샤바 명문 공립 중등, 고등학교
학비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batory.edu.pl/

◦ 14 Liceum Ogólnokształcące Staszic

도시명	바르샤바
커리큘럼	바르샤바 명문 고등학교
학비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staszic.waw.pl/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 Centrum Medicover Atrium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Al. Jana Pawla II 27, 00-867 Warszawa
전화번호	+48-500-900-5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CM LUX MED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Al. Jerozolimskie 65/79, 00-697 Warszawa
전화번호	+48-22-332-2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 DENTAL SERVICE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Ul. Braci Wagow 4, 02-791, Warsaw
전화번호	+48-22-648-4198
진료과목	치과

◦ Damian Medical Centre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ul. Wałbrzyska 46, 02-739 Warszawa
전화번호	+48-22-566-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	------

◦ Enel-med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Arkady Wroclawskie, Powstancow Slaskich 2-4
전화번호	+48-22-230-7007
진료과목	종합병원

◦ CM LUX MED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Legnicka 51/53, 54-203 Wroclaw
전화번호	+48-22-332-2888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즐로테 타라시(Zlote tarasy)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Zlota 59, 00-120 Warszawa
홈페이지	https://zlotetarasy.pl/
비고	바르샤바 중앙역 쪽에 위치한 즐로테 타라시는 바르샤바 중심 쇼핑몰로 유명하다. 가끔 2층에서 전통 춤을 추는 등 여러 이벤트도 개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 블루 시티(Blue City)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Aleje Jerozolimskie 179, CH Blue City, poziom -1, 02-222 Warszawa
홈페이지	https://bluecity.pl/
비고	바르샤바에 위치한 블루시티는 많은 매장이 입점해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 갤러리아 모코투프(Galeria Mokotow)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Woloska 12, 02-675 Warszawa
홈페이지	https://www.galeriamokotow.pl/

◦ 아르카다(CH Arkada)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Solec 81B, 00-382 Warszawa
홈페이지	http://centrumarkada.pl/

◦ 브로츠와비아(Wroclavia)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Sucha 1, 50-086 Wroclaw
홈페이지	https://www.wroclavia.pl/

◦ 마그놀리아(Magnolia)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Legnicka 58, 54-204 Wroclaw
홈페이지	https://www.magnoliapark.pl/sklepy/

◦ 갤러리아 크라쿠프스카(Galeria Krakowska)

도시명	크라쿠프
주소	Pawia 5, 31-154 Krakow
홈페이지	http://www.galeriakrakowska.pl/

◦ 갤러리아 브로노비체(Galeria Bronowice)

도시명	크라쿠프
주소	Stawowa 61, 31-346 Krakow
홈페이지	https://galeriabronowice.pl/

○ 포즈나니아(Posnania)

도시명	포즈난
주소	Pleszewska 1, 61-139 Poznan
홈페이지	https://posnania.eu/
비고	포즈난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포즈나니아는 식료품, 의료매장, 화장품 및 보석 매장 등 다양한 매장이 입점하여 인기가 많다.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 Biedronka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al. Jerozolimskie 54, Warszaw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비고	상기 주소는 바르샤바 중앙역점이며, 폴란드 대표 유통업체로 폴란드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형마트 체인이다.

○ Hala Mirowska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plac Zelaznej Bramy, Warszawa
취급 식료품	청과물 도매상
비고	폴란드 전통시장의 느낌으로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다.

○ Zieleniak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Grojecka 97, 02-120 Warszawa
취급 식료품	육류 및 어류 도매상
비고	폴란드 전통시장의 느낌으로 싱싱한 과일과 채소뿐 아니라 육류와 어류를 싱싱하고 싸게 구할 수 있다.

○ Hala Targowa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Piaskowa 17, 50-359 Wroclaw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폴란드 전통시장의 느낌으로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다.
----	--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시티 핏 (City Fit)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Twarda 18, 00-105 Warszawa
홈페이지	https://cityfit.pl/kluby/warszawa-rondo-onz/
소개	바르샤바 소재 피트니스센터 (Rondo ONZ 지점)

○ 소비에니에 크롤레브스키에 (Sobienie Krolewskie)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Sobienie Szlacheckie 6, 08-443 Sobienie-Jeziory
홈페이지	http://sobieniekrolewskie.pl/en/
소개	바르샤바 외곽 남쪽 소재 골프장

○ 바르샤바약대 스포츠센터 (Centrum Sportowo-Rehabilitacyjne WUM)

도시명	바르샤바
주소	Ksiecica Trojdena 2C, 02-109 Warszawa
홈페이지	http://csr.wum.edu.pl/
소개	바르샤바 소재 스포츠센터

○ 토야 골프 (Toya Golf)

도시명	브로츠와프
주소	ul. Rakowa 5, Kryniczno, 55-114 Wisznia Mała
홈페이지	http://www.toya-golf.pl/
소개	브로츠와프 외곽 북쪽 소재 골프장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	2023-01-01	2023-01-01
주현절	2023-01-06	2023-01-06
부활절 일요일	2023-04-10	2023-04-09
근로자의 날	2023-05-01	2023-05-01
헌법 제정 기념일	2023-05-03	2023-05-03
크리스마스 둘째날	2023-12-26	2023-12-26
성체축일	2023-06-08	2023-06-08
성모 승천일	2023-08-15	2023-08-15
만성절	2023-11-01	2023-11-01
독립기념일	2023-11-11	2023-11-11
크리스마스(성탄절)	2023-12-25	2023-12-25
오순절	2023-05-28	2023-05-28

<자료원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10. KOTRA 무역관 안내

◦ 바르샤바 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SEKCJA HANDLOWA AMBASADY REPUBLIKI KOREI)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9Fl. Warsaw Financial Center ul. Emilii Plater 53, 00-113 Warszawa, Poland
- 전화: +48-22-520-6230
- 팩스: +48-22-520-6231
- 이메일: biuro@kotra.pl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528>

공항-무역관 이동

◦ 바르샤바 쇼팽 공항 기준, 175번 버스를 이용하면 무역관 건물 인근에 있는 바르샤바 중앙역 앞에 도착한다. Emilii Plater 길을 따라 오른쪽에 문화과학궁전을 두고 걸어 올라오면, InterContinental 호텔을 지나 무역관이 위치한 Warsaw Financial Center 건물을 찾을 수 있다. 버스 이용 시 SINGLE-FARE TRANSFER TICKET(4.4즈워티)을 공항의 버스정류장 티켓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승차 후 승차권 기계를 통해 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 공항에서 전철 S2호선(공항철도)을 이용하면 무역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바르샤바 중앙역(Warszawa Srodmiescie역 하차)에 도착한다. 전철 이용 시 SINGLE-FARE TRANSFER TICKET(4.4즈워티)을 공항의 티켓자동판매기 혹은 전철 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승차 후 즉시 승차권 기계를 통해 스탬프를 찍어야 한다. 자동판매기에 따라 전철 내에서 발매된 티켓은 이미 스탬프가 찍혀 나오기는 경우도 있다.

◦ 택시 이용 시 공항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그 외 개별 주문을 희망할 경우, Uber, Free-now, itaxi 등 택시앱을 이용하여 주문 가능하다. 각 택시 회사는 공항에서 이용하는 승차 지점을 별도 안내해 주니 유의하여 정확한 지점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관 주소인 Emilii Plater 53 또는 무역관 건물 Warsaw Financial Center를 기사에게 알려주면 된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요금은 40~50즈워티(약 10~13 달러) 정도이다.

◦ 무역관 소재 건물인 Warsaw Financial Center에 도착 후 로비에서 방문처를 밝히면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